

# 무역과 세계화 개론

도서출판 리버티에서 낸 역서

《경제 모형과 방법론》

《공공선택론 입문》

《미국의 외교 문제: 간결한 역사》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불균형, 기업가 정신 그리고 발견》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대항하는 두 정치 경제 체제》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입문》

《대도시 지역의 공공경제: 공공선택 접근법》

《자유 사회의 기초》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축약된 국부론》

《자유 101》

《공공 정책과 삶의 질: 시장 유인 대 정부 계획》

《번영의 생산: 시장 과정의 작동의 탐구》

《애덤 스미스 입문》

《공공선택론 고급 개론》

《아인 랜드 개론》

《시장의 제도입: 시장 자유주의의 정치적 부활》

《자본주의 개론》

《정치적 자본주의: 경제 및 정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학파: 101인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본질적인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기업가 정신 개론》

《본질적인 애덤 스미스》

《민주주의 개론》

《본질적인 제임스 뷰캐넌》

《본질적인 밀턴 프리드먼》

# 무역과 세계화 개론

에이먼 버틀러 지음 · 황수연 옮김

An Introduction to  
Trade and Globalisation

by Eamonn Butler **iea**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도서출판 리버티

# 무역과 세계화 개론

지은이 에이먼 버틀러

옮긴이 황수연

펴낸이 구자춘

초판 1쇄 펴낸날 2022년 4월 8일

도서출판 리버티

48075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3-404

전화 (051) 701-0122 / 팩스 (051) 918-0177

출판등록 2013년 1월 10일 제333-2013-000001호

전자우편 jachoon2@hanmail.net

Liberty Publishing House

182 Yangwoon-ro, 103-404, Haecundae-gu, Busan 48075, Republic of Korea

Phone 82 51 701 0122

email jachoon2@hanmail.net

© 도서출판 리버티 2022

An Introduction to Trade and Globalisation by Eamonn Butler

Firs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in 2021

Copyright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21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22 by Liberty Publishing House

Translated by Sooyoun Hwang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Westminster,  
London, UK.

Reprin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저작권자인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계약한

도서출판 리버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766-28-3 (03300)

# 차례

• 지은이에 관해 .....	11
• 서론 .....	13

## 1 무역의 본질 .....

19

무역은 어디에나 있(고 있었다) .....	19
전문화와 효율 .....	20
승자들과 패자들에 대한 우려 .....	20
보호무역주의 .....	21
무역 장벽을 줄이려는 노력 .....	22
초국적 기업들 .....	23
도덕적 선으로서의 무역 .....	24
무역의 미래 .....	25

## 제1부

무역의 증대 .....	27
--------------	----

## 2 무역의 기원 .....

29

석기 시대 무역 .....	29
기록들과 맞고소들 .....	30

선물 교환과 화폐 혁명 .....	31
중세 통상로들 .....	32
새 사상들과 새 세계들 .....	33

<b>3 국제 무역의 증대 .....</b>	<b>37</b>
중상주의 시대 .....	37
자유 무역으로의 비틀거리는 이동들 .....	39
곡물법들과의 작별 .....	41
더 큰 개방 무역의 시대 .....	42
자유 무역 정책들의 쇠퇴 .....	43

## 제2부

<b>무역의 원리들 .....</b>	<b>47</b>
----------------------	-----------

<b>4 무역의 이론 .....</b>	<b>49</b>
교환과 가치 .....	49
전문화 .....	50
비교 우위 .....	51
불평등 우위들과 무역 .....	53
누가 누구와 무역하는가? .....	54
중력을 무시하기? .....	55

<b>5 무역의 편익들 .....</b>	<b>57</b>
무역으로부터의 정태적 이득들 .....	57

무역으로부터의 동태적 이득들 .....	59
비물질적 편익들 .....	61

## 제3부

무역에 관한 의심들 .....	63
------------------	----

### 6 무역에서 승자들과 패자들 .....

경제 변화는 승자들과 패자들을 만들어낸다 .....	65
더 부유한 나라들에서의 혼란 .....	66
노동 생산성 .....	68
변화와 세계화 .....	69
경쟁에의 노출 .....	70

### 7 세계화에 관한 우려들 .....

더 가난한 나라들의 강제 .....	73
영구적인 지체? .....	74
수입 대체 .....	75
공정 무역 운동 .....	77
가난한 근로자들의 착취 .....	78
환경파괴 우려들 .....	80
문화적 제국주의 .....	82

## 제4부

보호무역주의 .....	85
<b>8 보호무역주의: 정치학, 도구들, 문제들 .....</b>	<b>87</b>
보호무역주의의 정치학 .....	87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들 .....	88
어느 기업들을 보호할 것인가? .....	91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 .....	92
보호무역주의의 비용 .....	94
<b>9 보호무역주의 찬성론들 .....</b>	<b>95</b>
유치산업 보호론 .....	95
반(反)덤핑론 .....	96
노동 기준 .....	98
제품 기준과 생물 보안 .....	98
안보 우려들 .....	99
제재들 .....	100
<b>10 국제 수지 적자 .....</b>	<b>103</b>
국제 수지 .....	103
적자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 .....	104
국가 간 적자 .....	106
환율 .....	107
정부 개입 .....	108

## 제5부

오늘날의 무역 .....	111
---------------	-----

### 11 돌아온 자유 무역 .....

전후 무역 헌신 .....	113
시야의 확대 .....	114
서로 다른 접근법 .....	116
지역 무역 협정의 실례들 .....	118

### 12 초국적 기업들 .....

세계적 가치 사슬들을 관리하기 .....	123
TNC들의 기원 .....	124
불확실한 국경 .....	126
TNC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	128

### 13 무역과 도덕 .....

무역의 두 견해 .....	131
무역과 자유주의 가치들 .....	132
무역과 평등 .....	134
무역의 도덕적 가치 .....	135

## 제6부

무역의 미래 ..... 137

14 추세와 교훈들 ..... 139

국제 무역의 편익들 ..... 139

추세와 도전들 ..... 141

자유 무역 정책들에 대한 정치적 도전들 ..... 144

보호 압력 ..... 146

적응성의 필요 ..... 148

참고 문헌 ..... 151

추가적인 읽을거리 ..... 158

IEA에 관해 ..... 161

• *옮긴이 후기* ..... 165

• *옮긴이에 관해* ..... 167

## 지은이에 관해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는 세계의 지도적인 정책 싱크 탱크 중 하나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의 소장이다. 그는 경제학과 심리학 학위들, 철학 박사 학위, 그리고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에 그는 워싱턴에서 미 하원에 근무했고, 미시간주 힐스테일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으며, 그 후 애덤 스미스 연구소를 창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밸리 포지의 자유 재단(Freedoms Foundation at Valley Forge)이 수여한 자유 메달(Freedom Medal)과 영국의 전국 자유 기업상(UK National Free Enterprise Award)을 수상했다; 그의 영화 《마그나 카르타의 비밀들(Secrets of the Magna Carta)》은 앤섬 영화제(Anthem Film Festival)에서 상을 받았고, 그의 책 《자유 사회의 기초(Foundations of a Free Society)》는 피셔 상(Fisher Prize)을 받았다.

에이먼의 다른 책들은 선구적인 경제학자들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F. A. 하이에크 그리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대한 개론서들을 포함한다. 그는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 공공선택론, 자본주의, 민주주의,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그리고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관한 입문서들도 출판하였고, 게다가 《축약된 국부론(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과 《시중에서 최고의 책(The Best Book on the Market)》도 출판하였다. 그는 《40세기의 임금 및 가격 통제들(Forty Centuries of Wage and Price Controls)》과 IQ에 관한 시리즈

책들의 공저자이다. 그는 인쇄, 방송 그리고 온라인 매체에 대한 빈번한 기고자이다.

# 서론

##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국제 무역의 원리들, 경제학 그리고 정치학에 대한 간단한 개론이다. 쉬운 언어로 썼으므로, 그것은 국제 경제를 떠받치는 원리들과 무역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관리되는지에 관한 공개 토론에 관심이 있는 지성을 갖춘 독자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사업과 공공 정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도 모두 그것이 유용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 무역과 세계화가 중요한 이유

국제 무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것은 현대 생활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번영을 확산시키고 우리가 세계화(globalisation)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국가 사이 상호 의존과 문화 교환을 촉진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형성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제품들과 기회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역은 더는 면화, 곡물 식품, 목재 혹은 철광석과 같은 상품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금융, 보험, 교육, 원거리 통신, 보건 의료, 여행, 운송, 상담 그리고 정보 기술과 같은 서비스들로 확대했다.

세계화에 필수적인 상호 의존은 전화, 운동화, 자동차 혹은 사무실 의자와 같은 일상용품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들은 지금 여러 서로 다른 나라에서 여러 서로 다른 회사에 의해 제조되고 조립되는 부품들을 포함한다. 제조와 소매는 그다음 금융, 보험 그리고 운송으로 가능해지는데, 이것들은 역시 세계적 망에 속하기도 하는 은행과 회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로서, 우리는—적어도, 무역이 붕괴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제품들에 우리가 더는 접근할 수 없을 때까지는—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런 의존을 좀체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 경제적 상호 의존과 함께 사회적 및 문화적 교환이 생겼다. 무역과 세계화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식품, 영화, 연극, 음악, 미술, 사상 그리고 학문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계화로 다른 나라들의 역사와 전통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생활방식들을 더 크게 존중하게 되었다.

무역과 국제 정치는 더욱더 얽힌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는 최상의 무역 체제가 개방적인, 경쟁적 자유 무역—재화들과 서비스들이 가능한 한 거의 제한이 없이 나라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종종 다른 견해를 취한다. 이 책은 경제적인 자유 무역 찬성론을 받아들이지만, 해외로 이동하는 일자리, 잠재적인 안보 위협 그리고 수준 이하의 수입품과 같이, 그것의 비판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 책은 비판자들의 동기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수입세, 통상 금지 그리고 무역 전쟁과 같은 그들의 정치적 반응들이 끼칠 더 넓은 피해를 보여주면서다.

요약하면, 무역은 더욱더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을 바르게 하는 것은 훌륭한 경제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세계 곳

곳의 수백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평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 이 책의 구조

이 책은 무역의 기본 원리들에 관한 개요로 시작한다. 제1장은 무역이, 전문화와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촉진하는, 보편적인 인간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승자들과 패자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따라서 비판에 그리고 무역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정책들에 이를 수 있다. 국제 회사들의 역할과 자유 무역의 교훈이 개설되고, 그 후 무역의 미래를 고찰한다.

다음 두 장은 무역의 기원과 확대를 고찰한다. 제2장은 무역이 어떻게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현대 시대까지 성장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제3장이 설명하듯이, 국제 무역의 성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중세의 제한들이 19세기까지 지속하였고, 그 후 한 세기의 비교적 자유로운 무역에 길을 양보하였으며, 드디어 20세기 전쟁들로 제한들이 재부과되었다. 그리고 나라들의 국제 거래 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대는 민족들과 자원들의 착취, 그리고 인간 노예들의 거래—오늘날 어떤 자유 무역 옹호자도 용서하지 않을 것들—를 경험했다.

제4장은 무역의 이론과 자기들의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 능력들에 대한 나라들의 전문화를 개설한다. 그것은 무역이 기후와 자원들에서의 차이점들을 메워 주는 것을 돕는 방법을 설명하고 나라들이 서로 무역하는 이유를 탐구한다. 제5장은 무역의 편익들을 고찰하

는데, 그것이[무역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선택과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이 촉진하는 자원 사용에서의 체계적인 증진도, 고찰한다. 이 장은 또한 개방 무역 환경의 비경제적[경제 외] 편익들도 고찰한다.

다음 두 장은 사람들이 무역에 관해 가지고 있는 몇몇 우려를 제기한다. 제6장은 경제적 변화가 승자들과 패자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산을 비용이 더 싼 나라들에 외주(外注)하는 것은 일자리들을 위협할 수 있고, 한 경제가 새로운 현실 모습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제7장은, 세계화된 경제에서, 더 가난한 나라들이 더 부유한 나라들의 압력을 받는다는 우려를 역점을 두어 다룬다. 그것은 더 가난한 나라들이 항상 뒤쳐질지 모른다는 우려, 더 가난한 근로자들이 착취된다는 우려와 ‘공정 무역(fair trade)’ 운동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부유한 나라들이 작업을 더 낮은 환경 기준을 가지고 있는 더 가난한 나라들에 수출하는 쟁점을 탐구한다.

다음 세 장은 보호무역주의를 고찰한다. 제8장은 보호무역주의 조치들 배후에 있는 정치와 조치들 자체를 개설(概說)하고, 그다음 그러한 정책들의 비용들과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지적한다. 제9장은 더 자세하게 무역 장벽 찬성론들, 즉 유치산업, 덤핑, 제품 및 노동 기준, 안보 우려를—이 대부분이 잘못 생각된 것이라고 결론지으면서—고찰한다. 제10장은 국제 수지를 고찰하고 적자가 보호무역주의의 서투른 변명인 이유를 고찰한다.

다음 세 장은 오늘날의 무역을 고찰한다. 제11장은 무역 제한들을 낮추는 데 대한 현재의 세계 헌신과 오늘날의 더 넓은 무역 범위를 지적한다. 그것은 무역을 더 자유롭게 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고찰한다. 제12장은 세계 가치 사슬들(global value chains)을 그리고 초국적 기

업들의 역할과 권력을 고찰한다. 제13장은 무역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논거들을 탐구한다.

제14장은 무역의 미래를 고찰한다. 그것은 무역이 일반적인 편익들을 가져오지만, 또한 특정 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손실을 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무역을 제한하는 정치적 압력에 이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정부 정책이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1 무역의 본질

## 무역은 어디에나 있(고 있었다)

오늘날 세계 무역의 성장과 정도는 어마어마하다. 1979년에 무역은 세계 산출량의 그저  $\frac{1}{3}$  이상(35.6퍼센트)만을 차지했다. 1999년까지는 그것은 그저 반 미만(46.5퍼센트)만이었으며, 2019년까지는 그것은 반 훨씬 이상(58.2퍼센트)이었다. 1999년에, 수출된 재화의 총가치는 6조 달러 미만이었으며 수출된 서비스의 총가치는 1조 달러를 거의 넘지 않았다. 스무 해 후에, 이 총액들은, 각각, 거의 19조 달러와 6조 달러 이상이었다(세계은행 2019). 불가피한 일시적인 차질들 (금융위기, 내전, 국제 전쟁, 무역 전쟁, 심지어 세계적인 유행병)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자기의 장기 확대를 계속할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무역 확대와 더불어 세계화—번영의 증대와 아이디어, 문화 및 진보의 확산을 가져오는, 세계의 국민, 회사 및 경제 사이의 상호 작용과 통합—가 생겼다.

무역은 항상 존재했다. 그것이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증거가 있고, 전 대륙들을 가로지르고 연결한 놀랄 만한 고대 무역망들의 증거가 있다. 수천 년 동안 그것은 물물 교환, 재화들의 직접적인 교환으로서 변창했는데, 그 후 화폐의 사용이 더 흔하게 되었고 지중해 경제들이 이룩했다.

## 전문화와 효율

그렇지만 무역의 성장은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다. 중세 시대에서와 18세기까지는, 나라들은 금과 은을 축적하는 것이 외국 재화들을 사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양측 다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는 위대한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76)가 필요했다. 그의 견해는 무역 장벽의 제거를 촉진하였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과 증대하는 풍요의 위대한 19세기 시대를 촉진하였다.

전문화가 우리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향상한다는, 스미스의 통찰 중 또 하나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817)는 나라들이 자기들이 더 잘하는 것—자기들의 비교 우위—에 집중하고 자기들의 잉여를 다른 나라들과 무역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실상, 전문화와 무역을 통하여, 나라들은 자기들의 지리와 기후를 극복할 수 있다: 추운 나라는 자기의 제품을 겨울 과일과 교환할 수 있고, 불모의 섬은 자기의 광물을 곡물과 거래할 수 있다.

## 승자들과 패자들에 대한 우려

변화 없이는 진보가 없지만, 변화는 승자들과 패자들 양쪽 다를 만들어낸다. 양쪽 다가 어떤 단일의 교환으로부터도 이익을 얻음이 틀림없다고—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스미스가 말한 것이 옳지만, 전문화와 생산성 개선들은 도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변화들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더 부유한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값싼 외국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들을 빼앗고 있다고 불평하는 반면, 더 가난한 나라들은 전통적인 수공업들을 대량 생

산된 수입품들이 몰아내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한 나라가 똑같은 재화들을 살 수 있을 때 혹은 더 좋게는 더 값싸게 살 수 있을 때 그것들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문화함으로써, 모든 나라는 자기의 생산성과 자기의 가망을 향상한다. 무역이 일으키는 경쟁은 이런 진보의 자극제이다.

비판자들은 또한 더 부유한 나라들이 무역을 지배해서 다른 나라들을 뒤처지게 할지 모른다는지, 더 가난한 근로자들이 ‘노동자 착취 공장(sweatshop)’ 조건에서 착취된다는지, 무역 때문에 문화들이 궁지에 빠지고 있다고 조바심치기도 한다. 실제로는, 무역은,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빠른 번영의 증대를 전달했다. 제조업 작업을 더 가난한 나라들에 외주하는 것은 그 나라들의 국민에게 농업이나 광업과 같은 전통적인 직업들보다 덜 힘들고 덜 위험한 새로운 고용 기회들을 주었고, 그것은 그들이 더 부유한 생활을 확립할 수 있게 하였다. 무역은 또한 세계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문화적으로 더 풍부하게도 했고, 그것은 아이디어들과 혁신을 멀리 그리고 널리 확산시켰다.

## 보호무역주의

그런데도, 비록 생산자들이 소비자들보다 훨씬 더 적을지라도, 해외로부터 더 값싸거나 더 좋은 재화들의 위협을 받는 생산자들로부터 받는 압력으로 많은 나라는 외국 경쟁자들에 대해 장벽을 세운다. 어떤 나라들은, 자기들 자신의 산업들이 경쟁할 만큼 충분히 크게 성장할 때까지 더 값싼 수입품들에 저항하면서, 자급자족하게 되기를 원할지 모른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 자신의 생산자들을 은밀

히 헤치면서 자기들에게 값싼 재화들을 ‘덤핑(dumping)’한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높은 고용 기준과 환경 기준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들로부터의 수입품들에 불만일지 모른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재화를 사는 데 쓰고 있는 것이 그런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로부터 사는 데 쓰는 것보다 더 많다고 걱정할지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건, 나라들은 외국 수입품의 흐름을 막기 위해 종종 세금(‘관세(tariffs)’)이나 한도(‘수입 할당(quotas)’)나 눈에 덜 띄는 장벽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것에는 비용이 있다. 흐름을 단속하는 데 대규모 관료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역 장벽을 부과하는 나라들은 자기들 자신의 주민들을 상태가 더 나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무역 장벽을 부과하는 것은], 그것들의 소비자들이 원하고 그것들의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수입품들을 더 비싸게 혹은 심지어 획득할 수 없게조차도 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안들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거나 더 빈약한 품질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생산자에 대한 일시적인 편익들이 무엇이건, 그러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잘못임을 인정한다.

## 무역 장벽을 줄이려는 노력

보호무역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가속했는데, 그때 무역 장벽은 적국들의 경제들을 망치는 무기가 되었다. 그것은 양 대전 사이 여러 해까지 질질 끌었고, 제2차 세계 대전을 조장한 긴장 상태들이 이바지했다. 그렇지만, 그 직후, 특히 서양 강대국들은 무역 장벽이 일으킨 피해와 무역 장벽의 축소가 가져올 수 있을 편익을 깨달았다.

그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줄이고 더 쉽고 더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할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포럼—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수립했다.

개방적인 세계 무역이 경제 성장을 증가시키고 생활 수준을 올린다는 명제만큼 전문 경제학자 사이에 많은 합의를 얻는 명제도 거의 없다.

—그레고리 맨큐 (2006)

더욱더 많은 나라가 회담에 가담하고, 새 무역 쟁점들(예, 디지털과 원거리 통신을 포함한 서비스들에서의 무역, 각 나라의 전문 직업 기준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의 문제, 지적 재산권의 보호)이 의제에 오름에 따라, GATT 회담들은 공식적인 국제기구,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바뀌었다. 여러 해에 걸쳐, GATT와 WTO는 수입품들에 대한 평균 관세를 크게 줄였다. 확실히, EU의 농산물 관세와 같이, 높은 관세가 남아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같이, 무역 전쟁이 여전히 일어난다. 그러나 오늘날 보호무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 그것은 대개 덜 눈에 띄는 수단을 통해 수행된다—그리고 그 자체 다루기가 더욱더 교묘하다.

## 초국적 기업들

무역 확대의 두드러진 점은 초국적 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의 성장이었다. 그것은 공급 사슬 혹은 ‘가치(value)’ 사슬이 진정으로 세계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타이완에서 조립된다. 그러나 배터리는, 인도

와 브라질을 포함하는, 80개 나라에서 제조하는 어느 한국 기업이 공급한다. 사운드 칩은, 영국,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다른 8개 나라에서 공급된다. 화면은, 24개 나라에서 107개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어느 미국 회사가 만든다. 이동을 감지하는 장치는 독일, 중국, 일본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 공급된다. 회전익(回轉儀)는 스위스산이다. 카메라는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회사들에서 공급된다. 나침의(儀)는 프랑스, 미국, 영국 그리고 그 밖의 나라에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이 만든다. 추가적인 27개 부품도 똑같이 여러 동절할 만큼 다양한 나라에서 공급된다(Krueger 2020, 제7장).

이것들과 같은 세계적 망들을 관리하는 데는, 많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갖 크기의 동업자들 및 계약자들과 일하는, 세계적 범위를 가진 기업들이 필요하다. 어떤 비판자들은 그러한 기업들이 행사하는 경제 권력을 걱정하고, 그것들이 어떤 정부에 의해서든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지 걱정한다. 그렇지만 초국적 운영들은 항상 존재해 왔고, 많은 운영은 단지 느슨한 국제적 합작일 뿐이며, 흔히 생각되는 것보다 덜 강력하다.

## 도덕적 선으로서의 무역

그렇다면 많은 사람은 무역을, 그리고 그것이 더 가난한 나라들과 국민들에 미치는 효과들을,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도덕적 악으로서 비난하기조차 한다. 그러나 무역은 인간 번영에 엄청난 나게 이바지했는데,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그랬다. 무역이 1990년대에 (그때 인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개혁들은 그런 지역들을 세계 무역망들에 더욱 깊이 끌어들었다) 꽤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이래로, 대충 10억 명이 하루 2달러 빈곤에서 벗어났다.

무역은 또한 비경제적 편익들도 전달한다. 그것이 국제적 신뢰, 협력 그리고 이해(理解)를 촉진한다는 훌륭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 법의 지배, 정직, 자유 언론 그리고 다른 자유주의 가치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심지어 민족주의와 인종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 공정 그리고 평등을 촉진하기조차 한다. 결국, 무역의 편익들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협력을 우리가 정말 하는데,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그렇게 한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식품조차도 이 세계화된 세계에서는 많은 나라의 유행형들과 성분들을 채택한다. 영화, 미술 그리고 다른 문화 요소들은 국제적으로 되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그들의 생활양식들의 다양성을 더 잘 인정한다. 회사들은 초국적으로 되었고 유능한 국외 이주 근로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여러 곳에 여행하고 정착한다.

## 무역의 미래

무역이 확대되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쟁점들을 제기했다. 하나는 안보에 관심 집중이 증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은 휴대 전화 제공업체들이 화웨이 5G 장비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통신망들을 염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 두려워서이다. 또 하나는, 의복과 신발, 전자 장치, 향수, 장난감 그리고 의약품을 포함한, 위조품과 무단 복제물의 확산인데,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그것들이 세계 무역의 3퍼센트를 넘는다고 추정한다(OECD 2019). 증가하는 무역 부분은 지금, 은행업, 회계 사무, 법률 서비스, 보건 의료와 교육,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원거리 통신과 같은, 서비스들인데, 그것들 자체의 쟁점들에 더하여 (법률가들과 회계사들 같은)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격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또 하나의 우려는 환경인데, 나라들은 높은 탄소 발자국들을 가진 수입품들에 저항하거나 일정 비료들과 농약들의 수입을 금지한다. 그리고 더욱 일반적으로,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터키 같은) ‘신생(emerging)’ 경제들의 성장은 전 세계에 걸쳐 지역 사이 전통적인 경제 균형들을 기울게 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대부분 무역 정책은 경제 논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국내 및 국제 정치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것은 무역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틀이, 그리고 세계적인 법의 지배가, 필요한 이유이다. 나라들에 자기들 자신의 산업들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장벽을 세우도록 더해지는 많은 압력을 고려하면, 이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역이 미래에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알 방법이 없다: 우리의 최선의 정책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제1부

무역의 증대



## 2 무역의 기원

### 석기 시대 무역

무역은 인류만큼 널리 퍼져 있고, 아마도 그만큼 오래됐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화산 유리인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석기 시대 칼날들과 도구들이 20,000년만큼 오래전에 지금 뉴기니섬들 주변에(Summerhayes 2009) 그리고 17,000년만큼 오래전에 지중해 주변에 운송되었다(Atakuman 등 2020)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 약 8,000년 전에, 터키의 밀이 영국에 수출되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농업이 시작되기 몇 세기 전이었다(Schiermeier 2015). 또한 재화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리고 이집트 사이에 교환된 증거도 있다. 약 6,000년 전에 영국 돌도끼들은 프랑스에 수출되었고, 한편 이탈리아의 윤이 나는 옥도끼들은 영국으로 갔다.

그다음, 청동기 시대에는, 3,500년 전에 채광된 영국 구리가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고 북독일에 가고 있었다(Williams, 2019). 호박(琥珀)은 ‘호박 길(Amber Road)’을 따라 북유럽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로 운송되고 있었다. 동남아시아 섬사람들은 가공품들(예, 현외(舷外) 장치), 농작물들(예, 코코넛, 바나나, 백단향) 그리고 향신료들(예, 계피)을 인도와 스리랑카에 가지고 가고 오고 있었다(Findlay and O’Rourke 2007). 또한 인도 면화, 필리핀으로부터의 사탕수수, 인도네시아 향신료, 말레이시아 주석 그리고 중국으로

부터의 차에도 무역이 있었다.

그러한 광범위한 재화 이동들에 대한 다른 설명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역이 가장 그럴듯할 것 같다. 이것은 누구나 이 재화 중 약간—예를 들면 흑요석 도구, 옥 도끼, 이국적인 향신료—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높은 가치가 그것들을 무역에서 높이 평가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진실이다.

## 기록들과 맞고소들

우리는 이집트 데이크 엘-메디나(Deir el-Medina)에서 발견된 4,500년 된 기록들로부터 고대 세계에서 상업 관계들이 정말로 얼마나 강했는지 볼 수 있다(McDowell 1999). 그것들은 피라미드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화폐-물물 교환 거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화는 고정된 양의 곡물, 은 혹은 구리[銅], *데벤*(deben)으로 값이 매겨졌다. 따라서 15동 *데벤*의 가격이 매겨진 한 향아리의 신선한 기름은 각 5 *데벤*인 세 벌의 튜닉(tunics;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옷)이나 각 3 *데벤*인 다섯 개의 바구니와 교환될지 모른다. 물리적 양들의 곡물, 은 혹은 구리가 실제로 거래들에서 사용되는 것은 드물었다. *데벤*이 주로 계산 단위로서 이바지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집트 근로자들은—한쪽이 다른 쪽이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는—물물 교환 체제들의 고유한 문제(배고픈 이발사들이 이발을 원하는 빵 굽는 사람들을 찾는 것을 생각해 보라)를 극복할 수 있었다. 대신, 한쪽은 재화를 공급하고 다른 쪽이 얼마나 많은 *데벤*을 빚졌는지를 보여주는 회계 장부를 간직하곤 했다.

서비스들도 역시 거래되었다. 예를 들면, 당나귀들(유개(有蓋) 화물 자동차 임차의 고대 등가물)을 빌리는 고도로 발전된 장치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또한 항의들도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당나귀 한 마리를 가져왔지만, 나는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이 다른 놈을 가져왔지만, 그것도 역시 좋지 않으니 ... 그에게 나에게 좋은 당나귀를 가져오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돈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한 사람의 성난 근로자가 썼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알려진 유일한 항의가 아니다. 약 3,750년 전 바빌론[고대 바빌로니아의 수도]에서, 한 고객은 에아-나시르(Ea-nasir)라 불리는 상인에게 편지를 써서 질이 나쁜 구리에 관해 그리고 그 업무를 처리한 [고객의] 하인을 거칠게 대우한 것에 관해 항의하였다. 구리를 페르시아만에서 메소포타미아(현재의 이라크)로 수입한 에아-나시르는 그 항의를—그가 받았었던 많은 다른 것과 함께—집에 보관하였다.

## 선물 교환과 화폐 혁명

고대 세계에서 대부분 무역은 ‘선물 교환(gift exchange)’—사람들이 재화를 화폐와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재화를 다른 재화와 교환하는 것—이었다(Selkirk 2020). 참으로, 4,000년 전에 미노스 문명의 크레타섬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정교한 금속 세공품과 보석류 같은 어떤 재화들은 특히 무역을 위해 생산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무역에 대변혁을 일으켜, 선물 혹은 물물 교환 무역을 시장 경제로 바꾼 것은, 약 2,500년 전, 화폐의 발명이었다. 엄청나게 더 효율적이어서, 이 혁신은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향신료들과 예

술, 건축 그리고 문화에서 큰 진보들과 같은) 부와 사치뿐만 아니라—화폐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들 자신을 위해 무역할 수 있었으므로—독립도 역시 증대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민주주의를 발생시켰다(Selkirk 2020).

갑자기, 지중해 경제들이 이륙했다. 로마는 곡물과 포도주를 팔아서 부유해졌고, 그것은 유럽의 많은 지역과 북아프리카에 걸쳐 군사 및 무역 제국을 창설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산(産) 일용품들은, 그리고 프랑스산 광택 나는 붉은 사모스 도자기(Samian ware)는, 로마 제국의 최북단 맨 끝, 영국 북부의 하드리아누스의 방벽(Hadrian's Wall)에까지 수출되었다. 더욱더 인상적으로, 비단길(Silk Road)이 열려서, 지중해산 재화들이 시리아의 안티오크(Antioch)에,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질러서, 동으로 자그로스산맥(Zagros Mountains)을 통하여 엑바타나(Ecbatana) (지금의 이란)와 메르브(Merv) (투르크메니스탄)에,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몽골 그리고 중국으로 보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물론, 아시아 제품들은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중국은, 육상으로뿐만 아니라 해상으로도, 자바, 수마트라, 베트남, 남아시아와 그리고 홍해로도 무역하기 시작했다. 인도와 스리랑카는, 중개자가 되도록 위치가 잘 정해져 있어서, 중국 재화들을 로마로 운송했고, 유향(乳香)과 같은 사치품들을 보답으로 중국에 보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은 계속되었다.

## 중세 통상로들

이 소수의 예는 선사 시대와 고대 시대에 무역이 얼마나 놀랍도록 광범위했는지 보여준다. 그것은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서기 1000년까지는, 이슬람 세계(주로 북아프리카, 페르시아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란)는 지구의 모든 알려진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의 중개업자들은 중국만큼 먼 지역들에 정착하였다. 그것의 상인들은 소금과 직물을 서아프리카 금과 교환했고 육상 및 해상으로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 무역했다. 그것은 후추, 향신료, 직물 그리고 은을 유럽에, 말은 인도에, 그리고 금과 향신료를 더 동쪽으로 보냈다. 동유럽은 중국에 노예, 모피 제품 그리고 은을 보냈고 중국 종이를 중앙아시아 상인들로부터 그리고 향수를 동남아시아로부터 얻었다—그다음 후자는 백단향을 동아시아에 그리고 쌀과 보석용 원석을 남아시아에 팔았다. 한편 동아시아는 자기(磁器)를 지중해에, 차[茶]를 중앙아시아에 그리고 구리를 동남아시아에 팔았다—끝이 없는 국제 무역망(Findlay and O'Rourke 2007)이었다.

서유럽은 화폐를 일찍 채용하여, 원래 이탈리아 북동 해안 가의 높이었던 13세기 베네치아[베니스; Venice]가 서유럽, 이슬람 세계 그리고 중국 사이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부유해질 수 있게 하였다. 베네치아 상인이자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1271년과 1295년 사이에 비단길을 따라 아시아 각지를 여행하였고, 자기가 마주친 이국적인 문화들에 관한 자기의 작품으로 명사(名士)가 되었다. 베네치아는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였지만, 이탈리아 북서 해안 가의 제노바[제노아; Genoa]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자기의 근접을 이용했다.

## 새 사상들과 새 세계들

사상들과 기술들도 역시 흘러나왔다. 아라비아 숫자 체계는 더 번거

로운 로마 숫자 형을 대체했다. 상업은 쓰기와 기록 관리에 근거를 두게 되었고, 이것은 읽고 쓰는 능력의 보급에 이바지하였다. 무역의 필요는 특히 여성의 읽고 쓰는 능력을 증진하였다—상인들이 향해 중이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사업들을 계속 운영되게 하는 데 읽고 쓸 수 있는 가족들이 필요했다. 읽고 쓰는 능력과 함께 더 큰 독립심, 받아들여지는 견해들에 대한 의문, 그리고 과학 증진과 예술이 왔는데, 이것들은 유럽 르네상스의 본질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모든 사회와 모든 문명이 다른 사회들의 문화들과 다른 문명들로부터 크게 빌렸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혼자 힘으로 불과 바퀴를 발견할 필요가 없다. ... 중국인들이 종이와 인쇄술을 발명한 후에는 유럽인들은 두루마리들을 손으로 계속해서 베길 필요가 없었다. 말레이시아는 브라질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심은 후에는 세계의 지도적인 고무 생산 국가가 되었다.

—토머스 소웰 (2002)

유럽의 무역 관계는, 신세계를 여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남북 아메리카 발견과 함께, 그리고 6년 후, 동남 및 동아시아와 직접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베네치아-이슬람의 완전한 향신료 지배를 깨뜨리는(후추 가격이 4/5만큼 떨어졌다), 바스코 다 가마(Vasco de Gama)가 희망봉(Cape of Good Hope)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해로를 발견한 것에 의해 다시 확대될 것이다.

애덤 스미스(1776)는 후에 이 발견들을, 멀리 있는 국민들이 ‘서로의 결핍을 덜어주고, 서로의 즐거움을 증가시키며, 서로의 산업을 장려할’ 수 있게 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기록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서술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새 해상로들이 또한 강력한

유럽 국가들이 다른 국토들과 국민들을 착취할 기회들을 증가시키기도 했다는 점에 똑같이 실망했다.



### 3 국제 무역의 증대

#### 중상주의 시대

애덤 스미스가 쓰고 있었을 때, 세계 무역의 지배적인 견해는 중상주의(mercantilism)였다. 이것은 한 나라의 부가, 그것의 생산물—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국민 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이 아니라, 그것이 축적할 수 있는 자연 자원들의 양, 특히 금과 은으로 측정된다는 견해였다. 그러므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들은 나쁘게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들의 대금을 치르기 위해 금과 은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수출품들은 좋게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이 귀중한 금속들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무역은 ‘영합(零和; zero-sum)’이었다—세계의 부가 고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오직 판매자들만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 구매자들은 전혀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 한 국가는 오직 다른 국가들을 더 가난하게 함으로써만 부유해질 수 있었다(Butler 2007). 이런 사고에 근거하여, 통제들의 거대한 구성물—수입품들에 대한 조세, 수출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국내 산업들에 대한 보호—이 세워졌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중상주의 견해로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의 해상 국가들은, 자기들이 금과 은을 받고 팔 수 있을 상품들을 찾아서—그리고 그런 귀중한 금속들 자체를 찾

아서—제국을 건설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식민지로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스페인은 중앙아메리카와 많은 지역의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들이 영토, 금 그리고 은을 약탈하면서 페루의 잉카 문명,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족 그리고 멕시코의 아즈텍족을 짓밟았다; 포르투갈은 브라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에 식민지들을 수립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와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을 점령했다; 네덜란드는 남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 경쟁하는 제국들이 먼 지역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에 이르는 자기들의 통상로들을 보호하려고 다툼에 따라 냉혹한 경쟁들과 분쟁들이 있었다.

자기들의 다양한 취득물로 부유하게 되어, 이 제국들은 온갖 종류의 재화들을 유럽에 가져왔는데, 어떤 것들은 이미 이용할 수 있지만 드물고 값비싸고, 어떤 것들은 새롭고 이국적이며, 어떤 것들은 흔한데, 그것 중에는 차, 커피, 설탕, 럼주(酒), 향신료, 담배, 감자, 쌀, 면화, 옥양목, 비단, 모피, 자기, 목재 그리고 철이 있다(Hartley 2008).

그러나 해상 무역 확대가 먼 영토들에 대해 자진해서 참여하는 국가 사이에 서로 이로운 무역을 증대하면서, 그것은 또한 전 세계에 걸쳐 자원들과 인구들을 착취하는 유럽의 제국 및 식민 강국의 능력을 확대하기도 했다. ‘자유 무역(free trade)’으로 통한 것의 많은 부분은 사실상 총을 들이대고 일어났다. 따라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는, 비록 명목상으로는 무역 회사였을지라도, 경쟁 무역업자들과 싸우는 데 군사력을 사용할 왕권이 주어졌다. 1757년에 그것은 벵갈의 전(全) 무갈 국을 빼앗아서—많은 강제적 합병지의 첫 번째—세금과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은 그것들을 인도 재화들을

사서 영국에 수출하는 데 사용했다. 진정한 자유 무역과 그 편익들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인 애덤 스미스는 그러한 착취에 대해, 그리고 자기들의 우월한 힘을 ‘그 먼 나라들에서 벌을 받지 않고 온갖 종류의 불의를 저지르는’(Smith 1776) 데 사용한 것에 대해, 호되게 비난했다.

자유 무역이 아니라 중상주의가 제국주의를 촉진했고, 그다음 이것이 [제국주의가] 식민주의를 촉진했다. 그리고 식민주의는 자유 무역의 또 하나의 전도(轉倒), 즉 노예제를 촉진했다. 따라서, 서아프리카의 포르투갈 속령들로부터,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에서 가노(家奴)로서 그리고 포르투갈인 소유 마테이라(Madeira)와 카보베르데(Cape Verde)의 설탕 농장들에서 노예로 팔렸다. 영국 노예 상인들은 ‘삼각 무역(triangular trade)’에 종사했는데, 제품들을 아프리카로 가져가서 노예들과 교환했고, 노예 상인들이 그들을 카리브해에서 식민지 농장들의 노동자로 운송했으며, 그다음 그 결과로 나오는 설탕과 담배 수확들을 영국으로 되가져 갔다. 스미스는 유럽의 ‘비열한(卑劣漢)들(wretches)’에 의한 ‘영웅들의 국가들(nations of heroes)’의 이 ‘비참한(miserable)’ 정복의 ‘잔인과 비열(brutality and baseness)’(Smith 1759, 1763, 1776)을 다시 비난했다. 그에게는, 많은 그의 동시대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같이, 그것은 도덕적으로 경멸할 만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 무역의 전 개념의 전도(顛倒)였다.

## 자유 무역으로의 비틀거리는 이동들

중상주의에 대한 자기의 맹렬한 공격인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애덤 스미스는—누구에게나 강제되는 무역이 아닌

—정당한 무역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채로 놔 두어지는 것이 최상이라고 주장했다(Smith 1776). 중상주의 통제들의 거대한 구성물(과 그것이 낳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해악들)은 실수였다. 그는 만약 교환이 진정으로 자발적이면, 그것이 양측에 이익이 됨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만약 자기들이 거래로부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 어느 쪽도 기꺼이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판매자들은 현금을 얻음으로써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지만, 구매자들도 역시 자기들이 원하는 재화를 얻음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수입품들은 우리의 수출품들이 외국인들에게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무역하기로 합의할 때, 우리는 각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역으로 *창출된다(created)*.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고객들을 더 가난하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상호 자유 무역—재화들과 서비스들이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나라 사이에서 교역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각각이 더 부유해질 수 있다.

마치 그 점을 실례로 설명하려는 것처럼, 1776년에 스미스의 책이 출판된 그저 몇 달 후에, 영국과 그것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자들과의 관계는 공개적인 충돌로 전락했다. 중상주의 원칙들에 충실하게, 영국은 식민지들과의 모든 무역을 자신에게 확보하기로 시도했었고, 그것들[식민지들]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하는 것을 금했다. 그것이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새로운 세금들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인내의 한계를 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기를 들었고 자신들을 독립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나 중상주의 관념들은, 심지어 새 나라에서조차도, 지속하였다. 새 합중국 헌법 아래에서 통과된 첫 번째 주요 법률은 1789년의

관세법(Tariff Act)이었다. 세입을 올리고 더 값싼 유럽 수입품들에 대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그것은 강철, 선박 그리고 직물을 포함하는 수입품들에 50퍼센트까지 관세를 부과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쌀, 담배 그리고 면화 수출품들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러한 높은 관세를 반대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나폴레옹에 대한 영국의 전쟁들에서 생기는 무역 붕괴들에 직면하여, 제퍼슨 자신은 1807년에 영국에 대해 수출품에 대한 금지를, 그리고 그 다음 엄격한 무(無)통상 정책을 도입했다. 그것은 양측 다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고 1812년의 전쟁으로 절정에 달했다.

## 곡물법들과의 작별

영국도 역시 중상주의 보호들을 추구했다. 평화가 결국 회복되었을 때, (밀, 귀리 그리고 보리를 포함하는) 세계 곡물 가격들은 현저하게 내려갔다. 자기 자신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은 ‘곡물법들(Corn Laws)’—더 값싼 곡물 수입품들을 안에 들이지 않도록 설계된 제한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것이 지주들(의회에서 지배적인 세력)에게 이익을 주었지만, 그것은 보통의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식품 가격들을 높게 유지했다. 1816년의 흉작에 기인한 부족은 심각한 폭동에 이르렀다.

제한들의 반대자들은 반곡물법 동맹(Anti-Corn Law League)을 형성했다. 제조업자 리처드 코브던(Richard Cobden)과 지도적인 자유 무역 옹호자 존 브라이트(John Bright) (둘 다 후에 의회 의원)의 지도로, 동맹은 [제한들의] 폐지가 지주들의 부당한 수익을 끝낼 것이고,

농촌 빈곤을 뿌리째 뽑을 것이며,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상용 고용을 줄 것이고, 무역을 촉진할 것인데, 이것이 그다음 국가 사이 평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utler 2019).

나는—사람들을 함께 끌어들이고, 인종과 신조와 언어의 적대 관계를 밀어젖히며, 우리를 영구 평화의 유대로 결합하는—우주의 중력 법칙으로서 도덕 세계에 작용할 것을 자유 무역 원칙에서 봅니다.

—리처드 코브던 (1846)

그러나 곡물법들이 폐지되기 전에 더 많은 흉작이 필요할 것이다. 1845년, 아일랜드에서 감자 잎마름병은 막대한 식량 부족과 기근을 일으켰다. 비록 자기의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지주들을 지지했을지라도, 수상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은 제한들을 폐지하는 것에 착수했다. 그의 동료 보수당원, 웰링턴 공작(Duke of Wellington)은—실사, 자유 무역에 대한 어떠한 헌신보다도, 반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상원(House of Lords)을 설득하여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게 했다.

## 더 큰 개방 무역의 시대

1846년에 곡물법들이 폐지되어 곡물 가격들이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새 철도들과 증기선들이 광대한 아메리카 초원에서 풍부한 곡물을 영국에 가져오고 있었던 1900년까지는, 그것의 가격은 더 이른 수준들의 1/10이었다(O'Rourke 1999). 수입 식량으로 영국의 농지가 덜 귀중하게 되고, 그것의 가격이 거의 40퍼센트만큼 떨어지게 되었다(O'Rourke 1997). 소수의 부유한 지주들은 큰 손해를 보았지만, 많은

덜 부유한 영국 소비자는 이득을 얻었다.

제조업도 역시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증기력 수송뿐만 아니라, 전보(그리고 후에 전화)는 유럽 제조업자들을 자기들의 식민지들과 전(前) 식민지들의 공급자들과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데려왔다. 과일, 채소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이제 장거리에 걸쳐 빠르게 무역할 수 있었다. 수천만 사람이 이주하여 신생 식민지 시장들에서 자기들의 한 재산을 모으려 하면서, 새로운 상인 계급이 확대되었듯이, 무역항들이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확대되었다(Poon and Rigby 2017).

무역의 중심지(centre)는 여전히 유럽이었다: 그것은 제조업을 선도했고, 공급받을 수백만 소비자가 있었다. 그러나 무역의 초점(focus)은 서(西)로 이동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전통적인 양모보다 훨씬 더 질긴) 아메리카 면화를 수입했고, 세계 모든 지역에 수출할 값싼 식물과 완성 의복을 만드는 데 수력과 증기력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전 세계의 나라들에서 산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혁명—비록 부분적으로 미국 농장들에서 다른, 노예 근로자들의 강제된 노동에 기반을 둔 혁명이었다고 할지라도—이었다.

## 자유 무역 정책들의 쇠퇴

그렇지만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은 거의 한 세기의 비교적 자유로운 무역이 끝날 전조였다. 전쟁은 새로운 종류의 중상주의를 가져왔다. 그것의 목적은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귀금속들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원료들과 제품들을 축적하는 것—그리고 적국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 견해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수출을 제한하고 자기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면서 적국들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수출을 봉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목적에 새로운 기술들—재화를 적국들에 수출한 기업들을 요시찰 기업 명부에 올리는 것과 더불어, 기뢰(機雷), 잠수함, 심지어 공중 폭격조차도—이 적용되었다(Findlay and O'Rourke 2007).

심지어 전쟁이 1918년에 끝난 후조차도, 중상주의 사고방식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전승 강국들은 자기들의 패배 적국들이 무제한의 무역을 통해 번영하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다시 전쟁에 사용될 수 있을 재료들을 축적할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 자신의 일자리들과 산업들을 보호하기도 원했다. 그리고 그들의 중앙 집권적 전시 통제 체제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개입하는 것을 더 쉽게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 1913년에 세계 산출물의 13퍼센트 최고점까지 꾸준히 증가했었던 국제 무역은 1921년까지는 10퍼센트로, 그리고 1935년까지는 그저 5퍼센트로—그것이 1840년대였던 것에 불과하다—내려갔다. 참으로,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무역은 다시 자기의 1913년 산출물 뒤편에 필적할 것이다.

미국에서 악화하는 경제 상황은 그저 더욱더 많은 제한을 재촉했을 뿐이다. 192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허버트 후버는 농장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약속했고, 1929년 주식 시장 붕괴는 무역 장벽의 요구를 더욱 목소리 크게 하였다. 1928년에, 20,000개를 넘는 수입 품에 관세를 부과할,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것이 1930년에 통과되었을 때,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캐나다의 주도로, 자기들 자신의 수입 통제들로 보복했고, (대공황으로 바뀔) 경제 침체를 더욱더 깊게 하였다.

1933년까지는, 미국 산출물과 소득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 효과들은 또한 세계적으로도 느껴졌고, 특히 유럽에서 그랬는데, 거기서 그것들은 군국주의적 민족주의를 조장했다. 유럽 국가들이 제2차 세계 대전이 될 것을 대비함에 따라, 자유 무역의 사상은 과거의 일로 보였다. 그것은 돌아올 것이지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일치된 국제적 노력이 없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제2부

무역의 원리들



## 4 무역의 이론

### 교환과 가치

애덤 스미스가 자발적인 교환을, 돈을 받는 쪽뿐만 아니라, 양쪽 다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은 중상주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은 수수께끼 같았다: 결국, 두 쪽이 똑같은 재화를, 똑같은 가격에, 교환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은 그것을 얻음으로써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품목의 가치에 관해 틀렸음이 틀림없다는 것과 그러므로 교환으로부터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대답은 아니요 인데, 왜냐하면, 스미스가 깨달았듯이, 가치가 재화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재화들을 교환할 때, 그들 각각이 똑같은 재화를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아이는 훨씬 더 싸지만 자기가 더 즐겁게 여기는 장난감의 답례로 자기가 싫증이 나는 어떤 장난감을 학우와 기꺼이 교환할지 모른다. 교환은 오직 다른 아이가 장난감들을 반대 방향으로 평가할 때에만 진행된다. 흥미롭게도, 교환을 통해 새로운 어떤 것도 창출되지 않지만—어떤 새로운 장난감들도 만들어지지 않았다—양측 다 이익을 얻었다. 가치가 증가되

었다(Butler 2011).

재화나 서비스가 돈과 교환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다. 스미스의 추운 고국에서 오늘날의 고객들은 햇빛이 찬란한 콜롬비아에서 농부들이 재배한 바나나를 기꺼이 사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과일을 그들이 교환으로 넘겨주는 돈보다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콜롬비아 농부들은 돈을 과일보다 더 크게 평가한다. 그 이유는, 콜롬비아의 열대 기후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전문 영농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과 자기들의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바나나를, 매우 값싸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잉여를 쉽게 바나나를 재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고, 그 수익으로 자기들에게 더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살 수 있다.

## 전문화

이 점은 우리를 스미스의 다른 통찰, 즉 전문화하는 것—그가 *분업* (division of labour)이라고 부른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으로 데리고 간다. 전문화로 그들은 잉여를 축적할 수 있고 그다음 그들은 그것을 무역할 수 있다.

실행 중인 분업에 관한 스미스의 유명한 예는 핀 공장이었다. 우리 대부분은 하루에 한 개의 깔끔한 핀을 만드는 데 애를 먹을 것인데, 설사 그 금속이 이미 우리를 위해 제련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렇지만 스미스가 방문했던 핀 공장에서 열 사람은 하루에 48,000개 핀을 만들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각각 작업의 서로 다른 부분에

전문화했고 그들이 그것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 도구들을 얻었었기 때문이다(Butler 2011). 한 사람은, 그가 말한다, ‘철사를 뽑아내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곧게 하고,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자르고, 네 번째 사람은 그것을 뾰족하게 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대가리를 받도록 그것을 꼭대기에서 간다.’ 전부, 약 열여덟 개의 별개의 전문 작업이 수반되었다(Smith 1776).

무역은 대개 전문화 때문에 존재하는데, 후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잉여를 자기들이 더 크게 평가하는 것들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또한 사람들이 잉여를 생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전문화를 장려하기(encourage)도 한다. 간단히 표현하면, 당신이 값싸게, 쉽게 그리고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고, 그다음 무역하는 것이 수지가 맞다.

## 비교 우위

스미스가 다시 지적했듯이, 가구(家口)가 식품, 신발 혹은 의복과 같이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면서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생산하는 데 전문화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낮고 더 값싼 제품들을 자기가 살 수 있을 때,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개별 가구들에 사실인 것은 또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사실이다(Smith 1776). 왜 추운 스코틀랜드에서 포도나무들을 재배하여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것이 훈훈한 프랑스에서 비용의 30분 1에 생산될 수 있을 때?

마찬가지로, 확실히 영국에서 바나나들을 재배할 수 있지만, 재배업자들은 그것들을 어떤 규모에서건 재배하기 위해서는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온실들을 건설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난방장치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콜롬비아로부터 바나나들을 사는 것은 대단히 더 싼데, 거기서 그것들은 쉽게, 풍부하게 그리고 싸게 재배될 수 있다. 바나나들을 재배하는 면에서, 콜롬비아는 영국에 대해 *절대 우위*(absolute advantage)가 있다. 그러나 자기의 더 산업적인 경제를 가지고, 영국은 의약품들과 기계류를 만드는 데 능한데, 그것은[영국은] 이것들을 콜롬비아에 수출한다. 양 국가 다 이런 교환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만약 외국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값싼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우위가 있는 방식으로 고용된 우리 자신의 산업의 산출액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는 것이 더 낫다.

—애덤 스미스(1776)

이 생각은 또 한 사람의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817)에 의해 더욱 다듬어졌다. 자기의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가지고, 그는 설사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모든 것에 더 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무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나라는 자기의 무역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자기가 더 잘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사 콜롬비아가 다른 나라들보다 기계류를 더 싸고 더 낮게 생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바나나들을 생산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대부분 다른 국가보다 그것에 아주 대단히 더 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나나들을 재배하는 데 전문화함으로써, 그것은 자신을

더욱더 낮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자기의 생산의 규모와 효율을 증가시키고—비료, 병충해 방제, 식물 육종, 수확 그리고 포장 기술들과 같은—필요한 무엇에건 투자하여 *더욱더 좋고 값싼* 바나나들을 공급할 수 있다.

혹은 더욱 일상적인 예를 가지고 그 점을 설명하면: 의사가 진료소 접수 담당자보다 더 나은 자판 및 전화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의사가, 업무 편지들(*practice letters*)을 타자하고 전화를 받는 데 귀중한 시간을 쓰기보다,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이다.

## 불평등 우위들과 무역

리카도 자신은 서로 다른 나라가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한지에 근거하여 전문화를 제안했지만, 토지와 자본 같은 다른 요소들도 역시 제조업에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이런 자원들은 나라 사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영국은 콜롬비아보다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숙련 노동을 가지고 있다; 콜롬비아는 많은 미숙련 노동을 가지고 있지만 과일을 재배할 더 나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과 같은 생각들로 두 명의 20세기 스웨덴 경제학자 엘리 헉셔(*Eli Heckscher*)와 베르틸 올린(*Bertil Ohlin*)은 국제 생산 및 무역 패턴들이 무슨 요소 부존 자원들(*factor endowments*)—당신이 특정한 것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풍부하고 값싼지, 혹은 희소하고 비싼지에 근거하여 예측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Ohlin 1933*).

그들의 최초의 *헉셔-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은 오직 나라들의 서로 다른 노동 및 자본 부존 자원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차후의 경제학자들은 입지와 기후 같은 다른 관련 차이점들을 포함하도록 그것을 넓혔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같이 푸른 잎이 무성한 열대 국가는 과일을 생산하는 데 우위가 있을지 모른다; 한편 아일랜드의 온화한, 비가 많은 기후와 무성한 목초지들은 그것[아일랜드]에 젖소들을 기르고 버터와 치즈를 생산하는 데 우위를 준다. 미국의 기술적 전문 지식은 그것에 항공기를 설계하고 조립하는 데 우위를 주는 반면, 중국의 다량의 싼 노동력은 그것에 전자 장비를 조립하는 데 우위를 준다. 이런 식으로, 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불평등한 자원 분포를 보충한다.

## 누가 누구와 무역하는가?

명백하게, 매우 서로 다른 자원 배분—따뜻하거나 추운, 숙련이거나 미숙련인, 연안이거나 육지에 둘러싸인, 기름지거나 메마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 무역함으로써 얻을 것이 많다. 그러나 아주 비슷한 나라들도 역시 무역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유럽의 나라 사이에 대량의 무역이 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안에서도 역시 거래량의 증가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향상된 세계 무역이, 그리고 비교 우위의 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부나 입지나 자연 자원들의 면에서 비슷한 것 같은 나라들이 어떤 특정 재화를 공급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들과 무역하는 데서 여전히 우세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인도에서 그저 35마일만 떨어져 있지만, 그것에[인도에] 가공

육(加工肉), 향신료, 고무 타이어, 단열재 그리고 장갑을 공급한다. 한편, 인도는 스리랑카에 광물, 곡물 식품, 면화 그리고 기계류를 공급한다. 마찬가지로, 영국은 식량을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 수입하지만, 서비스들을 그들에 다시 수출한다. 베트남은 광물, 직물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을 이웃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후자는 보답으로 베트남에 과일, 채소, 고무 그리고 목제품을 공급한다. 각국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자기의 근소한 우세를 이용하고, 무역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우세를 유지하고 향상하게 밀어붙인다.

비교 우위는 무역이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명백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개별 나라들 안에서 국내 상업의 특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뉴욕은 금융 서비스들을 미국의 나머지 지역에 팔지만, 중서부는 제품들과 곡물들을 공급하고, 캘리포니아는 과일과 포도주를 판다. 또한 나라들 안에서 활동들의 주목할 만한 집락들(clusters)도 있다—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가 그렇듯이 인도의 하이데라바드(Hyderabad)는 주요 IT 중심지이다.

## 중력을 무시하기?

비슷한 나라 사이의 무역은 그저 그들이 가깝고, 어쩌면 심지어 비슷한 언어, 발전 단계 혹은 비슷한 문화적·법적 혹은 금융적 제도들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할 뿐일지 모른다. 참으로, 무역의 **중력 모형(gravity model)**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량이 대개 그들의 근접과 그들의 경제들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것이, (은행, 보험 그리고 자문 같은) 심지어 현대의 서비스 기반 무역에서조차도, 진실이라는 약간의 증거가 있다. 세계화된 세계에서

그것이 여전히 그럴지는 미결(未決)의 질문이다. 더욱더 싸지는 수송, 세관 절차에서 더 큰 표준화, 물류에서 효율을 증대하는 IT, 더 나은 통신, 기타 등등과 더불어, 먼 국가들과의 무역은 더욱더 쉬워지고 있다.

## 5 무역의 편익들

그렇다면 무역은 양측 다에 이익이 되고,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무역으로부터의 정태적 이득들* (static gains from trade)이라고 부르는 명백한 편익들은 자발적인 교환에서 생기고, 공공복지(특히 소비자들의 그것)를 증대하며, 경제 성장을 증대하는 가치 증가이다. 그러나 무역은 또한 성장과 경제 발전을 *가속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무역으로부터의 동태적 이득들* (dynamic gains from trade)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비경제적 편익들, *무역으로부터의 비물질적 이득들* (non-material gains from trade)도 또한 있다.

### 무역으로부터의 정태적 이득들

**더 많은 소득.** 무역은 더 높은 국민 소득을 전달한다. 중상주의 무역 장벽의 후퇴는 19세기 후기 영국의 경제 호황의 큰 부분이었다(Cain 1982). 비슷하게, 무역을 장려하는 전후 시도들은 20세기 후기 서양 국가들의 소득을 증가시켰다(Terborgh 2003). 더욱 최근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국제 무역망들에 들어가는 남아시아와 중국/동남아시아는 거의 10억 인을 비참한 빈곤에서 꺼낸 ‘아시아의 기적 (Asian Miracle)’을 일으켰다(세계은행 2016).

연구는 각 1퍼센트 무역 증가가 한 나라 국민의 소득을 약 2퍼센트

만큼 증가시킨다고 암시한다(Frankel and Romer 1999). 그것은 심지어 자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들조차도 부유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홍콩과 싱가포르의 주요 무역 중심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말에 비교적 가난한 지역들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부유한 지역들에 속한다. 대조적으로, 북한과 같이, 풍부한 자연 자원이 있지만, 무역과의 관계를 끊은 나라들은 세계 번영 표들에서 등급이 낮다.

**선택, 질, 가치 그리고 복지.** 그러나 무역은 다만 더 높은 소득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그것은 또한 더 나은 삶의 질도 전달한다. 명백하게, 더 부유한 나라들은 교육, 더 나은 보건 의료 그리고 더 깨끗한 환경 같은 것들에 더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그리고 다른 삶의 질 편익들은 또한 해외에서 오는 새로운 아이디어, 관행 그리고 과정을 통해 증진되기도 한다.

무역은 또한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온 광범위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 품질 그리고 가치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들은 더는 현지 제품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국가들과 문화들의 제품들을 누릴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직물, 의복 그리고 신발이나, 식품과 요리나, 전자 기기나, 차량이나, 가사용품이나, 심지어 은행 업무 혹은 교육 혹은 수리 작업 같은 서비스들조차도 포함한다. 생산자들도 역시 자기들 자신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을 돕는 세계 최고 제조 장비를 수입할 수 있다.

**자유주의 가치들.** 무역이 성장 및 증가하는 번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비록 그것이[무역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그것들의 원인이 된다(causes)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

마도—다른 사람들 권리들의 존중, 관용, 평화, 법의 지배, 자유 경제 그리고 자유 사회 같은 자유주의 가치들을 포함하여—무역을 지지하는 태도들이 주요 동인(動因)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가치들이 지배했던 사회들과 그것들을 보존하는 제도들(대의 민주주의와 불편 부당한 사법 제도 같은 것들)이 잘 유지되는 사회들은 가장 빠르게 향상했다.

## 무역으로부터의 동태적 이득들

**전문화와 생산성.** 제4장에서 언급되었듯이, 무역이 기반을 두고 있는 전문화는 막대한 생산성 증진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토지, 노동, 재료 그리고 자본 같은) 자원들의 더 나은 사용을 촉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생산자들을 밀어 똑같은 투입물들로부터 더 큰 산출물을 뽑아내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것은 그들을 자극하여 (더 크고 더 효율적인 공장 같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식품품류와 더불어 의복과 가정용품도 파는 슈퍼마켓 같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그리고 (실리콘 밸리에서 IT 기업들의 집락화와 같은)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를 찾아내게 한다. 덧붙여서, 무역이 가져오는 더 넓은 시장은 한 나라 자원들의 더 나은 사용을 촉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비무역국은 유희지의 광활한 공간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무역으로, 이것들은 개발되어 외국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수출 농작물들을 생산해서 국내 생산자들에게 현금을 가져올지 모른다.

**자원들의 전환.** 전문화와 무역이 아주 이롭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자

극하여 저가치 고용에서 자기들이 비교 우위가 있는 더 생산적인 산업들로 이동하게 한다. 예를 들면, 돌이 많고 태양의 열에 그을린 그리스 섬 산비탈의 작은 농장 다랑이들에서 한때 애써 일했던 근로자들은 이제는 영농을 그렇게 수지 안 맞게 하는 바로 그 바위투성이 풍경에 끌린 관광객들을 접대하는 호텔, 식당 그리고 상점에서 일한다. 관광 부문에서, 그들은 더 많이 번다—그리고 자기들의 식량을 다른 지역 사회들과 나라들의 더 효율적인 농부들로부터 산다.

**기반 시설과 투자.** 재화들을 그것들의 고객들에게 가져오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과 투자(항구, 공항, 도로, 터널, 다리, 게다가 망(網), 회계 제도, 금융 수단 그리고 심지어 법적 장치와 같은 것들)는 물론 다른 무역업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그들의 비용을 줄이며 그들이 새 시장들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득은 동태적인데, 왜냐하면 기반 시설과 투자가 미래 기업들에 비슷한 편익들을 전달하고, 이 기업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제품들을 무역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경쟁, 혁신 그리고 진보.** 국제 무역은 제품들을 시장들에 공급하는 데 수반되는 재능의 풀(pool)을 크게 넓힌다. 그러한 경쟁 증가는 국내 생산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활동들을 더 비용-효과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외자들에게 거래를 놓칠 위험을 무릅쓴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들은 비용을 통제하고 낭비를 줄여야 한다. 그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것과 그런 욕구들이 만족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양전선에서 미래 추세를 예상하기 위해서 빈틈이 없는 채로 있어야 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험할 필요가 있고, 고객들에 대

한 자기들의 매매 제의와 자기들 자신의 생산 과정들 양쪽 다 혁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혁신하고 개선할 이런 끊임없는 압력은 그다음 진보를 추진한다(Ridley 2020).

자유 무역이 상호 번영을 일으키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빈곤을 일으킨다는 메시지는 역사로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명백하여 누구도 늘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 같다. 어느 나라가 무역에 자기의 국경을 열고 결국 더 가난하게 된 예는 단 하나도 없다.

—맷 리들리 (2010)

## 비물질적 편익들

리처드 코브던이 깨달았듯이, 무역의 비물질적, 비경제적 편익들도 역시 엄청나다(Cobden 1846). 그것들의 경제적 영향과는 상관없이, 무역이 가져오는 선택, 혁신 그리고 진보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개선한다. 무역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의복, 더 나은 음식물, 더 나은 보건 의료, 더 나은 기술, 기타 등등을 가져온다.

그 자체로 소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 필수적이기도 한 평화도 역시 무역으로 촉진되는데, 왜냐하면 무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라와 문화 밖으로부터의 사람들을 대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과 잘 무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가치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거나, 적어도 관용—해야 한다. 그러한 친숙성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적개심도 줄인다.

무역이 양측 다에 가져오는 편익은 국가들이 자기들의 의견 차이를 군사적으로보다 평화롭게 해결할 타당한 이유이다. 우리가 필요한 많은 필수품에 대해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의존할 때, 그들과 협력하고

그런 재화들이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그리고 무역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맡겨질수록, 우리가 평화를 보존할 유인이 더 크다. 무역하는 국가들은 공급망들을 잡아 찢거나 생산을 위협하는 무력 충돌들로부터 잃을 것이 그저 더 많을 뿐이다. 무역은 갈등들이 공개적인 적대 행위들로 단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적게 한다. (아마도 잘못) 19세기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의 것이라고 보는 언급이 표현하듯이: ‘만약 재화가 국경을 넘지 않으면, 군대가 넘을 것이다.’

특히 수입업자들과 수출업자들은 자기들의 고객들을 그리고 자기들 고객들의 가치들과 제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심지어 다른 한쪽의 언어—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큰 통찰력의 원천—를 숙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소비자들도 역시, 자기들이 매일 사는 수입품들의 다양한 기원에 주목하고서, 또한 다른 국민들과 다른 문화들의 가치들을 인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날 연예(예로 영화와 TV)의 국제적 성질은 무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를 다른 문화들과 생활방식들에 이미 접하게 했는지의 예를 제공한다.

제3부

무역에 관한 의심들



## 6 무역에서 승자들과 패자들

### 경제 변화는 승자들과 패자들을 만들어낸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자유 무역의 일반적인 편익들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지만, 무역은 불가피하게 승자들뿐만 아니라 패자들도 낳는다.

이 점에서, 무역은 경제생활의 어떤 다른 부분과도 다르지 않다. 긍정적으로는, 경제 경쟁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과 우리가 그것들을 생산하는 방법에서 혁신, 발명 그리고 개선을 자극한다. 그것은 일반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증대하는 진보를 전달한다. 그러나 경제 변화는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들의 삶을 붕괴시키는데, 특히 자기 자신의 산업들이 그것으로[경제 변화로] 중복되게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도래는 마차 대여업을 파산시켰다; 그다음 헨리 포드의 생산 라인 체계는 손으로 조립한 자동차를 비경제적으로 만들었다. 디지털카메라는 필름 카메라를 대개 구식으로 만들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의 편입은 그것[디지털카메라]에 대해 똑같은 일을 했다. 오늘날 말 운송이나 필름 카메라나 어떤 다른 구식 기술로 돌아가기를 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각 발전은 그것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쫓아낸다.

기술에서 변화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기호에서 변화들도 역시 승자들과 패자들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더 평상복의 의복

선택들은 전통적인 신발 제조업자들이 나이키(Nike)나 리복(Reebok) 같은 스포츠화 제조업자들에 의해 무색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 반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경향은 자라(Zara), H&M, 프리마크(Primark), 유니클로(Uniqlo) 그리고 갭(Gap) 같은 저비용 초국적 소매업자들이 전통적인 현지 옷 가게를 희생시키고 번창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환경과피 우려는 고객들을 재촉하여 플라스틱 제품과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그것들을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생산자들에 문제를 일으켰다.

자연적 사건들도 역시 산업들을 붕괴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세계적 유행병은 많은 나라에서—비록 가지고 가는 요리를 파는 식당, 디지털 연예 회사 그리고 온라인 소매업자는 번창했을지라도—식당, 영화관 그리고 상점의 광범위한 폐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변화는 승자들과 패자들을 가져오는데, 비록 그것이 삶의 일부일지라도 그렇다. 그리고—경제들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그리고 새로운 생활양식에 개방하는—변화의 중요한 원천은 무역이다.

## 더 부유한 나라들에서의 혼란

무역이 일으키는 끊임없는 변화의 하나의 현저한 예는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저비용 나라들로 제조업 일자리들을 외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조업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자리들을 잃고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애쓴다. 때때로, 영국의 북부(석탄, 철강업)와 미국 중서부(철강업, 자동차 제조)와 같이, 한때 특정 산업들에 의해 지배되었던 전 지역들은 ‘탈

산업화(deindustrialised)' 되고, 깊은 사회적 박탈을 일으킨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기들의 세계적 운영들에 재집중하고 국내에 덜 투자함에 따라, 기회들과 지역 사회 지원 양쪽 다 줄어든다(Hochberg 2020: 제2장).

이것이 소득 불평등의 증가에 이른다는 약간의 증거가 있다(Poon and Rigby 2017: 제6장).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지만, 무역은 승자들도 또한 만들어낸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증가시키고 제품들을 더 싸게 한다. 하나의 미국 추정치는 수입품들에서 각 1퍼센트 증가가 가격들을 2.4퍼센트만큼 줄인다고 암시한다(Hausman and Leibtag 2005). 그것은 식품, 의복 그리고 신발 같은 필수품들의 가격을 포함하는데, 이 점은 특히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소득 불평등의 어떤 상승도 상쇄할지 모른다.

또한, 어떤 제조업 일자리 상실들이 세계적 외주와 더 값싼 수입품들 때문이지만, 무역이 그것들 모두에 대해 비난받을 수는 없다. 사실, 더 부유한 나라들은 제조업 고용의 하락—예를 들어, 미국에서 1979년 최고치 1,940만에서 오늘날의 1,250만으로 내려갔다—을 경험했다. 그러나 연구는 그 하락의 약 85퍼센트가 무역보다는 자동화, IT 그리고 물류와 같은 생산성 향상들—무역 없이도, 자연적으로 일어났을지 모르는 향상들—에서 비롯된다고 암시한다(Klein 2016; 또한 Devaraj 등 2017; Hicks and Devaraj 2015도 보라).

국제 무역은 또한, 고가치 혹은 선진 제조업에서와 같이, 부유한 나라들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했을지도 모른다(Klein 2016). 많은 쫓겨난 산업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또한 보건 의료, 교육, 소매, 서비스 혹은 IT와 같은 더 생산적이고 경쟁적인 부문들에서 일자리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제조업에서 미국인들의 1/3 이상은 새로운

일자리를 5주 이내에 그리고  $\frac{2}{3}$ 는 14주 이내에 찾는다(미국 노동 통계국 2020). 그리고 비록 공장들이 무너지고 기계류가 녹슬지 몰라도, 오늘날의 ‘인간 경제(people economy)’에서 중요한 자본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인들 자신들의 재능과 경험(Pirie 2002),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는 망들이다(Butler 2018).

## 노동 생산성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 부유한 나라들의 사람들은 싼 노동 국가들로부터의 경쟁이 불공정하다고 종종 믿는다.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외국 경쟁자들이 지급하는 것들보다 여러 배 더 높은 최저 임금과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불평한다. 근로자들은 고객들이 국산품에서 더 값싼 외제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자리들이 상실될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에 문제들을 가져오는 변화들은 다른 나라들에 는 은혜일지 모른다. 개발도상국들은 노동 비용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일들을 그들에게 외주함으로써 더 부유한 나라 제조업자들은 자기들의 고객들에 대한 가격들을 줄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을 자극하여 그들 자신의 비교 우위들—말하자면, 더 높은 기능들이나 많은 자본 장비를 요구하는 일들—에 집중하게도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임금들은 미국에서의 것들보다 훨씬 더 낮 은데, 이 점은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그리로 다시 배치된 이유이다. 그러나 실제 이동은 아마도 훨씬 더 적을 것이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미국 근로자들보다 덜 생산적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도울 자본을 더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풍부한 미국인 한 명이 할 수 있을 바로 그 일을 하는 데 자본이 빈약한 멕시코인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의 증가는 미국에서 같은 수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 변화와 세계화

보통, 경제 변화들은 천천히 일어난다. 심지어 부유한 나라들에서조차도, 마차 운송은 자동차들이 도래한 50년 후에도 여전히 사용되었다. 그러한 점진적인 변화들은 기업들에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근로자들이 더 생산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무역의 비판자들은 세계의 전문화 증가가 개인들, 기업들, 나라들 그리고 참으로 세계를 더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붕괴들에 노출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필수적인 제품들이 외국에서 올 때, 그것들의 공급이, 우연히나 의도적으로, 붕괴될지 모를 위험이 항상 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 전쟁들은 영국과 미국의 무역을 붕괴시켰다. 그것들은 또한 프랑스의 직물 산업도 망쳤는데, 왜냐하면 생산업자들이 더는 카리브해 면화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Krpec and Hodulak 2019). 석유 수출국 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에 의한 1973년 석유 금수는 영국, 일본,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중공업에 심하게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더욱더 최근에서조차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세계적 유행병에서, 많은 나라는 자기들이 병원 의료진을 위해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대개 수입된다는 점과 자기들이 공급품

을 얻으려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 경쟁에의 노출

나라들은 자기들이 수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의 산업들을 무역 장벽 뒤에서 보호했는데, 그다음에 이 보호들이 갑자기 일소(一掃)될 때 특별한 붕괴에 직면한다. 예를 들면, 그들의 정부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무역 제한들을 줄이는 ‘자유 무역 협정들(free trade agreements; FTAs)’을 맺고, 그 점의 전반적인 이득을 환영하지만, 한때 보호되었던 산업들을 경쟁할 수 없게 내버려 둘지 모른다. 참으로, 더 값싼 외국 수입품들의 갑작스러운 유입은 전 부문의 파멸을 초래할지 모른다.

사람들은 자유 무역이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사실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무역 장벽을 낮춘 것이다.

—P. J. 오루크 (2009)

당연히, 국제 무역으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산업들은 자기들의 시장들을 경쟁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반대하는 로비를 가장 열심히 하는 산업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특권적 보호는, 더 적은 선택, 더 높은 가격 그리고 더 빈약한 품질이라는 면에서, 소비자들의 희생으로 생겼다. 어떤 시점에서, 그들은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그 적응은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동안 이 산업들, 그들의 근로자들 그리고 일반 나라에 손실들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세계화에 관한, 그리고 무역 장벽을 가능한 한 빨리 줄이려는 WTO의 야망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화의 비판자들

은 더 가난한 나라들의 산업들이 세계 시장들에서 경쟁할 만큼 충분히 크고 비용-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주장한다—소위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보호론(제9장을 보라)이다.



## 7 세계화에 관한 우려들

### 더 가난한 나라들의 강제

세계화의 가장 호된 비판자들은 그것을 더 부유한 나라들이 현지 생산자들보다 싼 값으로 팔으므로써 더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하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전략으로 본다. 그들은 더 부유한 나라들이 WTO를 지배하고 그것의 규칙들을 정해서, 더 가난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무역 장벽을 낮추지 않을 수 없게 하지만, 자기 이익만 생각하여 자기들 자신의 것을 보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 부유한 국가들이 더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국제 토론들에서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기 GATT 시절 동안 협상된 제조업 관세들에서 큰 하락들은 개발도상국들에 가장 크게 이익을 주었는데, 비록 이들이 보답으로 거의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랬다.) WTO 협정들은 그것들이 제정될 수 있기 전에 모든 회원국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래서 나라들은 만약 자기들이 의혹을 가지면 제안들을 저지할 수 있다. 그리고 WTO가 지금 164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분 나라는 짐작건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무역 협정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 영구적인 지체?

어떤 비판자들은, 그것의 편익들이 무엇이건, 무역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 불평등한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위 프레비시-싱어 가설(Prebisch-Singer thesis)은, 세계가 더 부유해짐에 따라, 제품들의 수요가 식량, 석유 그리고 광물들과 같은 기본재들(primary goods)의 수요보다 더 빨리 증가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아주 간단하게, 더 부유한 세계는 더 많은 사치품을 사지만, 심지어 가장 부유한 국민들조차도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이나 연료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더 부유한 나라들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더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기본재들을 생산하므로, 후자는 항상 뒤쳐질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기 있었던 이 견해는 더는 지지할 수 없다. 기본재들의 가격들은 금융위기, 제조업 하강 그리고 자연 재해의 타격을 받아 심하게 변동하지만, 그것들은 세계적 호황 동안 급등한다. 예를 들면, 그것들은 중국과 기타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생 시장들로부터의 수요 증가 때문에 2000년대 초기 급등했다. 한편, 경쟁의 압력을 받아, 제품들의 가격들은 꾸준히 하락했다—(전자 장치들, 의복 그리고 신발 같은) 어떤 것들은 눈부시게 그랬다. 그러한 제품들의 많은 생산은 지금 더 가난한 나라들로 이동했고, 그들이 어쨌든 기본재 수출품들에 덜 의존하게 하였다. 자료로부터 가장 명백한 결론은 지체가 없고, 심지어 어떤 명백한 추세조차도 없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 2020). 개발도상국들은 영구적인 따라잡기를 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지 않다. 참으로, 어떤 나라들은 현저하게 빠르게 성장했다.

‘지체(lag)’론의 변형은 무역이 그저 불평등한 교환의 식민지 패턴들을 보강할 뿐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심지어 오늘날조차도, 영국

은 인도, 오스트랄라시아 및 아메리카와, 프랑스는 서아프리카 및 카리브해와, 그리고 스페인은 남아메리카와 중요한 통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역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신의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더 쉽다. 그리고 오래 거래한 무역 상대국들과 그저 계속하기만 하는 것보다 새로운 무역 상대국들과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더 어렵다.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들은 또한 새로운 무역망들을 수립하고 자기들 자신의 제조업들을 쌓아 올리는 것도 할 수 있고 정말 한다. 참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바깥의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제품들의 수출들이 상품들의 수출들을 따라잡았다. 일본, 싱가포르, 남한 그리고 중국과 같이 한때 가난했던 나라들은 지금은 주요 세계적 제조업 수출국이고 주요 서비스업 수출국이 되고 있다. 어떤 과거 식민지들은 지금 자기들의 한때의 지배자들보다 더 부유하다. 그래서 더 가난한 나라들이 더 부유한 나라들에 항상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다.

## 수입 대체

그런데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런 생각들로 많은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 자신의 경제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진국들에 대한 자기들의 의존을 줄이는 것이었다. 정부들은 새로운 제조업들을 창설했고, 철강업, 자동차, 가정용품, 심지어 전자 장치와 항공기조차도 만들었다. 이 ‘유치산업들(infant industries)’은 투자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도록 설계된 무역 장벽과 외환 통제로 보호되

었다.

결과들은 실망스러웠다. 비교 우위가 없고, 시장들과 투입 공급품에서 멀며, 전혀 이문이 있지 않은 제강소와 같은 위신 사업들에 돈이 낭비되었다. 국내 경제들은 자기들의 제품들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개발되지도 규모가 크지도 않았다. 그 결과로 나타난 정부 재원에 대한 부담은 부채, 인플레이션, 낮은 (종종 음의) 성장률 그리고 심지어 개발도상국들이 수출 시장들에서 차지하는 몫의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이것들은 의도되었던 것과 정반대였다(Poon and Rigby 2017: 제 5장).

그렇지만 몇몇 정부는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 견해를 심지어 1980년대까지도 추구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수입을 제한하고 외국 제조업자들과의 합작 모험사업들을 방해함으로써 국내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를 증대하려고 하였다. 애석하게도, 이것은 그 나라의 다른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구식인 장비에 대해 세계 가격의 두 배를 치르는 상태로 되게 하였고, 브라질의 경쟁력에 타격을 주었다.

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그들은 수입 대체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고 저숙련 제조업에서의 자기들의 비교 우위에 따라 행동했거나, 무역국으로서, 자기들의 수입을 수출로부터 벌었다. 그 결과, 싱가포르, 홍콩, 남한, 일본, 타이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산업화할 수 있었고, 프레비시-싱어의 영구적인 지체 예측들을 거부하였다. 남한이 1960년에 거의 모든 관세를 폐기하였을 때, 수출이 30퍼센트로 증가하고 GDP가 10퍼센트로 증가하였다(Krueger 2020: 제4장). 그러한 예들은 개발도상국들을 자극하여 수입 대체 정책들을 포기하고 대신 무역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 공정 무역 운동

세계화가, 가난한 나라들의 농부들을 해외의 더 효율적인 생산자들로 부터의 경쟁에 노출함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억제할지 모른다는 광범위한 인본주의적 우려가 있다. 커피 가격의 하락으로 더 절박해진 이 우려는 종교 집단과 행동주의 집단이 1992년에 공정 무역 재단(Fairtrade Foundation)을 창설하는 것에 이르렀다. 그것의 목적은 부유한 나라들의 소비자들(처음에는 커피에 대해서지만, 그다음에는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치르는 가격의 더 큰 몫이 생산자들에게 갈 것을 보장함으로써 그들[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일 브랜드(brand)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재단은 또한 농민들이 가격들의 변덕을 이겨내고 기계류와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도울 장기 동반자 관계들도 수립하곤 했다. 자기의 25주년 기념일에서, 재단은 도구들, 훈련, 신용, 학교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 사업들에 투자되는 ‘공정 무역 프리미엄(Fairtrade Premium)’에 자기가 10억 파운드를 발생시켰다고 추정했다.

재단의 목적들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몇몇 경제학자는 그것이[재단이] 진정으로 가난한 농민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촉진하는지 이익을 제기한다(Sidwell 2008). 부유한 나라들이 가공 커피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유지함으로써 매년 버는 수십억 유로를 포함하여, 세계 커피 시장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25년에 걸쳐 10억 파운드에 상당적으로 소액이다. 더군다나, ‘프리미엄’의 많은 부분은 소수의 농부에게 가고, 그것의 많은 부분은 노동자들보다 지주들에게 가며, 대개 멕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에 들어간다. 이 보조금들은 실제로, 에티오피아 같은, 더 가난한 나라들의 농민들이 경쟁하기 더 어렵게 할지 모른다. 게다가, 보조금은—너무 많은 생산자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떨어지는 커피 가격들 같은—시장 신호들의

기를 꺾고, 농민들을 재촉하여 다각화하고 새로운 제품들이나 산업들을 탐구하게 하기보다, 그들을 자기들의 기존 상태에 가둘지 모른다. 그리고 재단은 더 가난한 생산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지 모르는 다른 윤리 브랜드들을 무색하게 하였다. 비판자들은 공정 무역 운동이 실행 가능한 장기 개발 전략이 아니라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들이 더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농산물 수입품들에 대한 관세들을 제거함으로써 똑같거나 더 큰 편익들이 달성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Mohan 2010).

## 가난한 근로자들의 착취

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들도 또한 있다. 예를 들어, 세계화의 비판자들은 초국적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긴 작업 시간, 낮은 임금 그리고 나쁜 조건을 가진 ‘노동자 착취 공장들(sweatshops)’로 밀어 넣는다고 주장한다.

실제 사진은 덜 뚜렷하다(Poon and Rigby 2017). 확실히, 제조업 일자리들은 부유한 나라들이 참는 것보다 더 낮은 임금, 더 긴 작업 시간 그리고 더 빈약한 근로 조건을 참는 싼 노동의 나라들로 이동했다. 그러나 아무도 수출용 의복이나 전자 장치를 만드는 공장들에서 일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그들은 광업이나 농업과 같은 다른 선택지들보다 그 일이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이며, 보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 그들의 임금들과 작업 시간들은 선진국들의 구경꾼들에게 충격을 줄지 모르지만, 다른 현지 일자리들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보다 일반적으로 가치가 더 높고, 종종 상당히 더 높다(Skarbek 2006). 그리고 더 높은 벌이는 아동 노동의 더 낮은

정도를 의미한다(Edmonds and Pavcnik 2004): 공장 벌이는 특히 10대 소녀들에게 이로워, 가족들이 그들을 더 오래 교육 상태에 두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이 더 늦게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을 수 있게 한다(Heath and Mobarak 2014).

세계화는 ... —세계화에 반대해서—전 세계의 사람들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서 공장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자리들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으로 위협받는 것을 보았다. 개발도상국들의 농민들은 자기들의 일자리들이 ... 미국으로부터의 농작물들로 위협받는 것을 보았다. 유럽의 근로자들은 얻기 위해 열심히 싸운 일자리 보호들이 공격되는 것을 보았다. ... 환경론자들은 우리의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을 수립할 자기들의 종이 십 년이나 되는 투쟁을 세계화가 서서히 약화한다고 느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2007)

전반적으로, 증거는 무역이 더 가난한 나라들에서 생활 수준과 근로 수준을 증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가진 나라들은 증가하는 고용 수준을 가지고 있다(Poon and Rigby 2017: 제6장). 무역은 그들의 국민들에게 더 높은 임금, 더 많은 고용, 감소된 빈곤, 더 나은 영양, 증진된 건강 그리고 더 긴 수명을 가져온다(Norberg 2017). 그것은 근로자들을 비공식적 경제에서 꺼내는데, 거기서는 낮은 임금과 나쁜 조건이 만연하고, 안전이 존재하지 않는다(McCaig and Pavcnik 2011).

무역은 개발도상국들의 소비자들에게도 또한 이롭다. 식품, 의복, 전자 장치, 통신, 매체, 기타 등등에서 시장들은 진정으로 국제화되었고,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현지 산업들이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낮

고 더 값싼 수입 제품들을 가져왔다. 특히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요한 이득이다.

틀림없이,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혹은 인도는 무역 없이는 그들이 이루었던 진보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다수의 삶이 그렇게 많이 그리고 그렇게 빨리 향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역이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한 1980년까지 여러 해 동안, 세계 인구의  $\frac{1}{2}$  이상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갔다. 1990년까지는, 그것은 그저  $\frac{1}{3}$  이상만으로 떨어졌다. 지금은 그것은  $\frac{1}{6}$ 이다. 그리고 그것은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1990년 빈곤 수치는 거의 19억 명을 나타냈다. 세계 인구가 그때 이래로 거의  $\frac{1}{2}$ 만큼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하루에 2달러 빈곤이 지금까지는 25억을 초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지 모른다. 사실상, 그것은 5억으로 떨어졌고, 대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다.

## 환경파괴 우려들

또 하나의 비판은 세계 무역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싼 노동 나라들은 더 부유한 나라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은 환경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들이 외주될 때, 화석 연료들을 사용하고 유독 배기가스들을 방출하는 공장들에서 그 일이 더 행해질 것 같다. 그리고 농업을 더 이문이 있게 함으로써, 무역은 토지의 과잉 이용과 침식, 그리고 새 농토를 찾으면서 삼림들과 기타 야생 동물 서식지들의 파괴에 이를 수 있다.

가난한 나라들은 그러한 불평들이 위선적이라고 응답한다. 부유한

나라들은 자기들 자신의 초기 개발 동안 환경파괴 우려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그들은 말한다. 대부분은 농업을 위해 자기들의 삼림들을 벗겼고 공업을 위해 화석 연료들을 태웠다. 개발도상국들에 똑같은 기회들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불평등을 연장할 뿐이다.

물론,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초기 행동들의 환경 영향을 대개 몰랐다. 오늘날에는, 누구도 잠재적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나라들이 자기들의 초기 개발 단계들에서 환경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그들은 더 깨끗해진다. 사람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그들은 불결한 공장들, 오염된 강들 그리고 연기로 가득 찬 거리들을 덜 기꺼이 받아들인다. 또한, 다행히도, 무역과 성장은 우리에게 더 값싼 ‘녹색(green)’ 생산 기술들을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이 빠르게 이 자연적 주기를 거치게 허용하는 것이 더 부유하고 더 깨끗한 세계를 창설할 것이다(Dinda 2004). 장기적으로, 무역과 성장은 환경을 개선한다.

또 하나의 환경파괴 우려는 세계 무역으로 재화들이 넓은 거리로 운송되어 우리가 소비하는 것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생산을 더 싸게 함으로써, 무역은 우리를 부추겨 더 많은 제품을 사게 하여, 문제를 증가시킨다(Frankel and Romer 2005).

그렇지만 운송의 환경 비용은 상상한 것보다 더 낮다. 컨테이너 수송과 컴퓨터 물류로 재화들이 놀랄 정도로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수송될 수 있다. 참으로, 대부분 ‘식품 수송 마일(food miles)’은 상점과 고객의 가정 사이의 마지막 마일이다. 추운 기후들에서는, 농작물들과 동물들을 현지에서 기르는 ‘현지 구매(buy local)’ 대안은 따뜻한 기

후들에서 그것들을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역을 환경에 전적으로 해로운 것으로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WTO 협정들은 환경파괴 우려들을 정말 생각한다. 진정한 과제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면서 여전히 인간 진보를 증진하도록,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무역을 조직하는 것이다.

## 문화적 제국주의

세계 무역의 마지막 비판은 그것이 현지 문화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천박한, 소비지상주의 서양 생활양식들로 바꾼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매체는 서양 텔레비전, 영화, 사회 매체 그리고 컴퓨터 게임의 지배를 받는다. 전통 식품들 대신에, 햄버거, 닭튀김(fried chicken), 피자 그리고 커피가 세계 곳곳에서 맥도널드(McDonald's), KFC, 스타벅스(Starbucks)의 지점들—혹은 그것들의 현지 모방점들—에서 제공된다. 서양 상점들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리마에 이르는 도시들에서 서양 브랜드들을 판다.

그러나 문화 확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작을 번역서로 읽었고 이국적인 향신료들과 과일들을 멀리서 수입했다. 비단길은 종이, 인쇄술 그리고 화약을 유럽에, 그리고 새로운 종교들을 중국에 가져왔다. 자바와 보르네오에 인도 문화의 도달은 그들의 향료 수요를 만족시켰다. 아라비아 숫자와 천문학은 전 세계에 퍼졌다.

그리고 문화 확산은 양방향 과정이다. 양쪽 다 선택하고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부터 채용한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그것의[미국의] 햄버거들(이것들은 그들에게 대부분 대안보다 달러당 더 많은 영양을 전달한다)을 즐기고 코카-콜라(이것은, 많은 다른 현지 선택지와 다르게, 어디서나 마시기 안전하다)를 마신다. 한편, 미국인들은 중국 침술, 일본 무술, 오스트레일리아 TV 프로그램,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부터의 이국적인 요리를 즐긴다.

우리를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드러냄으로써, 무역은 문화적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예술(연극, 음악, 건축), 현지 공예, 패션, 디자인, 매체(책, 잡지, 방송, 영화), 유산(관광, 박물관, 화랑, 도서관), 축제, 스포츠 그리고 다른 많은 것에 대한 국제 관심의 증가를 설명한다. 무역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꺼이 자기들 자신의 문화에 편입하는—만약 그들이 그것이 유리하다고 여기면—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소개한다. 문화들의 이 양방향 보급은 심지어 세계적 일체감을 촉진하고, 민족주의의 기반을 약화하며, 신뢰를 증가시키고, 이해, 관용 그리고 평화를 촉진할지도 모른다(Wright 2018).



제4부

보호무역주의



## 8 보호무역주의: 정치학, 도구들, 문제들

### 보호무역주의의 정치학

무역과 세계화의 잠재적인 부정적 면들에 관한 대중 우려들을 고려하면, 나라들은 일정 수입품들을 억제할 강력한 압력에 직면한다. 특히, 그들은 더 값싼 수입품들로부터의 경쟁을 두려워하는 산업들로부터 단호한 로비 활동에 직면한다. 그것이 소비자들에 대한 더 높은 가격을 의미할지 모르지만, 관계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소비자들은 똑같은 맹렬한 동기가 없다. 한편, 외국의 무역업자들은 국내 정치인들을 위협할 표가 없다. 그리고 일단 제자리에 놓이면, 통제들은 제거하기가 어려워진다—그래서 보호무역주의의 꾸준한 상승을 일으킨다.

보호무역주의의 배후에는 또한 많은 다른 다양한 동기도 있다. 나라들은 자기들의 생활방식 그리고 농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들을 보존하기를 원할지 모른다. 그들은 외국 투자자들이 자기들의 산업들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들은 아직 세계적으로 경쟁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새로운 산업들을 보호하기를 원할지 모른다. 그들은 무역에 과세함으로써 세입을 올리기를 희망할지 모른다. 혹은 그들은—오스트레일리아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원천의 조사를 요구한 후에 중국이 오스트레일리아 포도주에 대해 200퍼센트 수입세를 가지고 했듯이—심지어 비관을 침묵시키기를 희망할지 모른다.

보호무역주의는 보통 국내 정치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농업은 고도로 가치적인 산업인데, 대부분 나라는 그것을 자기들의 국내 경제에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그것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이것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실질적이지만 덜 가치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더욱 나쁘게, 각 나라는 자기들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을 채택한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 정책들은 그것들이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농장들, 소유자들 그리고 생산 방법들을 다루려고 노력함에 따라 또한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농업은 종종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 농장 산출량의 약 25퍼센트는 수출된다. 그래서 농업 무역 정책들은 나라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의 다양한 국내 정책과 맞물리게 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더욱더 복잡해진다. 그것은 모두 농업을 WTO 무역 협상들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로 만든다.

##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들

**관세:**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 목적들을 달성하도록 시도할 수 있는 많은 서로 다른 방식도 또한 있다. 가장 명백한 것은 **관세(tariffs** 혹은 **customs duties)**—수입품들을 소비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하거나, 세입을 올리거나, 혹은 양쪽 다를 위해 설계된, 수입품들에 대한 조세—이다. 관세는 수입품들의 값의 백분율로서(**중가세로(ad valorem)**)나, 각 단위에 대해 고정된 금액으로서나, 그 둘의 조합으로서 부과될지 모른다.

관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국제 조치를 통해 상당히 삭감되었고

지금은 널리 빈축을 산다. 그러나 한 나라가 외국 수입품들에 저항할 다른, 덜 투명한 방식들—소위 *비관세 장벽들*(non-tariff barriers)—이 있다.

**직접적인 비관세 장벽들.** 예를 들어, *수입 할당*(quotas)이나 *수입 허가*(import licences)는 해당 나라에 수입될 수 있는 재화들의 양이나 값에 한계를 정한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수입될 수 있는지에 절대적인 제한을 부과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기가 캄보디아로부터 받아들이는 쌀의 총톤수를 제한한다. 혹은 나라들은 낮은 관세나 무관세로 어떤 재화의 일정량을 들이지만, 어떤 그 이상의 수입품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모른다. 수입 할당은 국내 생산자들이 해외로부터 약간, 그러나 완전히는 아닌, 경쟁에 직면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입 할당 제도는 대단히 복잡할 수 있어서, 그것을 관세보다 덜 투명하게 하고, 부패를 자극한다. 또한, 그것은 여전히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을 올린다. 그리고 그것[수입 할당 제도] 때문에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사업에 필요한 투입물들을 얻지 못할지 모른다. 관세로는, 해외로부터의 투입물들은 그저 더 비싸질 뿐이지만, 수입 할당으로는, 그것들은 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것은 성공적인 기업들의 산출물을 제한하고 새로운 기업들의 설립을 억제할지 모른다(Krueger 2020: 제5장).

또 하나의 선택지는 *수출 자율 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s)이다.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양에 대한 자발적인 제한인데, 보통 수입국이 요구하고 더욱더 가혹한 제한을 두려워하는 수출업자들이 동의한다. 한 예는 일본이 1980년대에 미국에

대한 자기의 자동차 수출품들을 제한하기로 동의했을 때 있었다. 그러나 1994년에 WTO 회원국들은 그러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가결했다.

**간접적인 비관세 장벽들.** 한 나라는 또한, 번거로운 세관 서류 작업이나 고의적인 지연 같은, *관료적 방해*(bureaucratic obstruction)로 수입업자들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미국 통상 대표부 2019).

다음, 한 나라는 수입품에 번거로운 *기준들*(standards)을 부과하고, 때때로 서로 다른 정부 기관들로부터 복수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모른다(Fisher 2021). 그 명분은 불충분한 인간 혹은 동물 복지 조건들 아래에서 만들어진 수입품을 막거나, 수입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적 재산권에 관한 정당한 우려들이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외국 경쟁자들은 자기들의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특허권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생산자들보다 싼값으로 팔고 있거나, 기술을 수입하고 그다음 복사하고 있을 것이다. 기준들은 가장 혼한 무역 장벽 형태이고, 아마 틀림없이 오늘날 관세나 수입 할당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입품들에 대한 기준 요건들은 순전히 보호무역주의 이유로 쉽게 조작된다.

더욱 덜 투명하게, 정부들은 자기들의 산업들에 보조금을 주거나 그들에 값싼 용자, 낮은 임차료 혹은 특별 세금 감면을 부여하여, 그들의 제품들을 수입품들보다 더 값싸고 더 매력적으로 할지 모른다. 혹은 그들이 행정 업무나 공공 사용을 위해 물건들(예, 소프트웨어, 정비 업무, 소방 장비, 건설 자재 그리고 의약품)을 살 때 그들은 오직 국내 공급업자들을 선택할지 모른다. 어떤 경우들(예, 방위와 통신 장

비)에는, 외국으로부터 사는 것에 관해 진정한 안보 우려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우려들은 쉽게 비전략 산업들에 남용되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WTO 규칙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 어느 기업들을 보호할 것인가?

나라들은 모든 수입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그것은 그저 광범위한 부족과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만 할 것이다. 대신, 그들은—기존 ‘국가 챔피언(national champions)’이나 자기들이 미래에 자랄 것으로 희망하는 새로운 ‘유치(infant)’ 산업과 같이—자기들이 보통 경쟁으로부터 특별한 위협을 받는 산업들이라고 여기는 것이나 자기들이 기간(基幹) 산업이라고 보는 산업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어느 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 경쟁 외의 많은 이유로, 기업들이 허우적거릴지 모르고, 일자들이 위협받을지 모른다. 그들은 그저 투자와 생산성에서 뒤처질 뿐 일지 모른다. 성가신 세금들과 규제들이 그들의 제품을 너무 비싸게 할지 모른다. 어쩌면 시장이 포화 상태로 되거나, 광택들이 바닥이 나고 있거나, 기술이 이동했고 사람들이 더는 그들의 제품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건, 해외 경쟁은 보통 희생양이다. 슬픈 결과는 보호무역주의가 성장 산업들보다는 사양 산업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보호무역주의를] 비용이 많이 들고, 감사받지 못하며, 비효과적인 정책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들은 최첨단 기업들과 기술들을 식별하는 데 능하지도 않다. 예를 들면, 일본의 통상 산업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그러한 산업 전략의 성공적인 예로 널리 인용

된다—은 아마도 승자들을 돕기보다 패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한은 오직 그것이 자기의 보호무역주의 통제들을 제거한 후에야 번창하기 시작했다(Krueger 2020). 그리고 ‘국가 챔피언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저 그들을 나태하고 경쟁력이 더 적게 할 뿐일 수 있다.

정부들은 승자들을 뽑는 데 미숙하지만, 패자들은 정부들을 뽑는 데 능하다.

—맷 리들리 (2020)

##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

불행하게도, 무역 장벽들이 어떤 산업들에서 일자리들을 보호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다른 것들에는 비용을 부과하는데, 자기들의 생산 과정들을 위해 수입 원자재들과 부품들에 의존하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다.

게다가, 무역 장벽의 비용은 국내 소비자들이 치르는데, 그들이 수입품들에 대해 직면하는 더 높은 가격에서 그리고 줄어든 선택과 경쟁에서 그렇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팔리는 신발의 98퍼센트는 수입된다. 만약 관세가 신발 수입을 제거한다면, 미국인들이 문자 그대로 구두창이 닳아버리기 전에는(on their uppers) 국내 생산자들이 그 공백을 메울 기회가 없을 것이다.

중서부 철강업 일자리들의 상실을 뒤바꾸려고 설계된, 철강 수입품들에 대한 미국의 2018년 25퍼센트 ‘트럼프 관세(Trump Tariff)’로 설명되듯이,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문제들을 일으킨다. 사실상, 그런 일자리 상실들은 세계 철강 생산에서 주기적인 과잉을 반영하였는데,

더 많은 미국 산출량은 그것을 그저 악화할 뿐일 것이다. 제한들을 시행하는 것은 대규모 관료제가 필요했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항소들과 법정 소송 사건들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생산될 수 없었던 전문 철강들이 관세에 휘말려 들었고, 복잡한 면제들이 고안될 필요가 있었다. 미국산 철강의 가격들이 세계 가격들 위로 오름에 따라, 철강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들과 가정용품들의 가격들도 역시 올랐고, 외국 수입품들을 더 매력적으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일자리 상실들은 아마도 제철에서 얻은 무엇이든 능가하였을 것이고, 임금들과 GDP 양쪽 다 악화했다(York 2020).

보호무역주의는 또한 다른 나라들에도 비용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EU가 부과하는 것들과 같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높은 장벽들은 설탕이나 커피 같은 단일 농작물을 수출하는 데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에 특별히 해로울 수 있다. EU가 베냉(Benin; 아프리카 서부의 공화국)으로부터 작은 새우의 수입을 금지했을 때, 그것은 수출업자들, 물고기 상인들 그리고 어부들 자신들을 포함하는 베냉의 작은 새우 산업의 붕괴로 이어졌는데, 그들 다수는 그 산업에 너무 심하게 투자하여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을 수 없었다. 손해는 금수(禁輸)가 결국 제거된 한참 후에도 지속되었다(Houssa and Verpooten 2013).

경제학자들은 대개 최상의 정책이, GATT의 1986-93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도되었듯이, 모든 보호의 다자간 완화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하기야 비록 거의 성공하지 못하긴 했다: 농업에 대한 나라들의 정치적 및 문화적 충성이 (심지어 그것이 비교적 작은 산업인 곳에서조차도) 매우 강하다.

## 보호무역주의의 비용

수백만의 서로 다른 제품이 교역되어서, 보호무역주의 정부들은 각각에 어느 장벽들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서 복잡한 과제에, 그리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는 데서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한다. 그것은 논쟁들과 법정 소송 사건들에 이르고, 무역업자들이 자기들의 특정 제품들을 통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

무역 장벽들은 또한 밀수를 이문이 있게 하기도 한다. 재화들이 비밀리에 하선(下船) 되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 제3국에 수송되어 거기서부터 수입될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고도의 수입 할당이나 관세가 필요하지 않은 재화로 틀린 라벨을 붙이거나, 중간 관세를 피하기 위해 물품 대금이 더 적은 송장을 작성할지 모른다. 다시, 세관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이 관행들을 눈감아 주어 재화들이 들어오게 할지 모른다.

무역 장벽들을 세우고 경비하는 데는, 그리고 밀수와 부패를 막는 데는, 대규모 관료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65,000명의 관세 국경 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공무원을 고용한다. EU는 공항, 국경 검문소, 항구 그리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114,000명의 세관 공무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50만과 백만 사이 어떤 세관 공무원이 있을지 모른다. 모두가 관세 장벽들을 경비하는 데 바쁘지는 않을 것이지만—약간은 마약들과 테러리스트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을지 모른다—대부분은 아마 그 일에 바쁠 것이다. 그것은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이다.

## 9 보호무역주의 찬성론들

### 유치산업 보호론

언급되었듯이, 무역 장벽의 가장 흔한 명분 중 하나는 나라들이 새로운 산업들을, 그것들이 대규모 생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해외의 경쟁 경쟁자들과 겨룰 수 있는, 크기로 키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제7장에서 개설(概說)되었듯이, 개발도상국들은 한때 이것을 자기들의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 정책들에 결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가격이 변동할지 모르는 단일 농작물이나 광물에 의존하는 나라들과 같이,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나라들에 여전히 중요할지 모른다.

역사는 보호무역주의가 참으로 신생 경제들의 유치산업들에 이로울 수 있다고 암시한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자기의 초기 시절에, 자기의 제조업 내구력을 축적하는 데 수입 통제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던 것 같다. 오늘날에도, 한 나라가 자기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초국적 기업들로부터 보호할 논거가 있을지 모르는데, 초국적 기업들은 개개 나라가 규제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고(제12장을 보라) 그래서 자기들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계략으로 파산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큰 시장 지배력을 얻을지 모른다.

그러나 유치산업 보호론에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새로운 ‘유치(infant)’산업들을 키워야 할까? 선택은 어떠한 진정한 경제적

성공 가망보다도 정치적 목적들로 이루어질지 모른다. 또한, 그것들이 보호되기 때문에, 보호되는 산업들은 비효율적으로 되거나 성장하는 것이 느리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그것들이 통제들이 제거될 만큼 성장했을지 명백하지도 않다; 그리고 이 산업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보호들을 유지하도록 운동할 것이다. ‘소위 유치산업들은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97)은 썼다. ‘일단 부과되면, 관세는 좀체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론, 더 값싼 수입품들이 거부되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비용도 남아 있다.

관세는 한 나라가 자기 자신의 국민에게 지정된 외래품들을 사는 데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국민이 대신 국산품들을 사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입품들의 가격을 올린다.

—프레드 흑버그(Fred Hochberg) (2020)

만약 목적이 새로운 산업들을 키우는 것이라면, 더 나은 도구들이 있을지 모른다; 세금 감면, 훈련 교부금 혹은 보조금이 더 효과적이고 보복을 덜 일으킬 것 같을지 모른다. 세계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다룬다는 면에서, 개별 나라들에 다수의 무역 장벽을 세우게 허용하는 것보다 경쟁 정책에 관한 국제 협정들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점에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 반(反)덤핑론

보호무역주의의 또 하나의 논거는 외국들이 [다른] 외국 생산자들에 손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그들을 사업에서 몰아낸 다음 무역을 독차지

하도록 설계된 약탈적 조치에서 재화들을 다른 국가들에 ‘투매(dump; 덤핑)’—그것들을 자기들 자신의 나라에서보다 수입국에서 더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것—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초국적 기업은 더 작은 경쟁자들을 계약으로 파산시켜 보려는 노력에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생산자들을 모두 억누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업은 매우 풍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그들이 시도할 이유를 보기는 어렵다. 약탈적 덤핑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드물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정부들이 자기들의 산업들에 보조금을 주거나 다른 국가들보다 싼 값으로 팔기 위해 자기들의 통화를 조작할 때이다. 그들은 수출품들을 매우 낮은 비용에 생산하는 데 심지어 피착취 혹은 노예 노동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 EU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의해 세 가지 모두에 대해 비난받았다. 이 경우, 국제법은 수출국들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제품들에 대해 어느 나라가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 CVD)를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수출품들에서 어떤 이점도 빼앗는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은 식별하기가 항상 쉬운 것이 아니고, 수입국들은, 보호무역주의 이유로, 정당화되는 것보다 더 높은 CVD를 부과하기 위해 그것[정부 보조금]을 과대평가할지 모른다. 보조금 외에도, 수입품들의 가격이, 심지어 생산 비용 아래로도, 낮을지 모르는 많은 이유도 또한 있다. 수출업자들이 재화들을 생산했지만 그것들을 팔지 못했는지 모르고, 아니면 청산할 일시적인 과잉 재고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들이[재화들이] 조달할 수 있는 얼마든 받고 그것들을 싸게 매각할지 모른다. 값싼 재화들의 그러한 1회 혹은 일

시적 유입들은 국내 생산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지 모르는데, 설사 그것들이 소비자들에게 단기 편익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Anderton 2015). 그러므로 ‘반덤핑(anti-dumping)’ 조치들은 이익보다 손해를 더 많이 끼치고,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하는데, 후자는 그다음 그 이상의 보복을 재촉한다(Ikeson 2017).

## 노동 기준

더 부유한 나라들에서 국민은 더 가난한 나라들[의 제품들]이 더 값싼 유일한 이유가 그들이—저임금, 긴 근로 시간, 안전하지 않은 작업조건 그리고 아동 노동과 같은—더 낮은 고용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한 불평하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소득, 회사 그리고 자본에 대해 더 낮은 세금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더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자본이 부족하므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낮아서, 그들은, 부득이, 부유한 나라들에서의 근로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더 오래 그리고 더 불결하고 위험한 조건들에서 더 기꺼이 일한다. 그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 수입 통제들을 올리는 것은 그저 그들이 버는 것, 자본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을 막을 뿐이다.

## 제품 기준과 생물 보안

또 하나의 혼란 우려는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예, 전기 제품, 의약, 재활용 폐품 혹은 유전자 조작 농작물)이나 비윤리적으로 공급되는 제품들(예, 식육 제품이나 죄수가 만든 제품)을 안에 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들은, 환경 기준과 같이, 제품들이 생산되고

가공 처리되는 방법에 대해 다른 기준들을 종종 부과한다.

만약 한 나라가 자기 자신의 생산업자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들을 수입업자들에 부과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보호무역주의적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안전 및 윤리 이의들이 정당하고 그저 꾸민 보호무역주의만이 아닌가? 예를 들면, 미국이 가축에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닭고기를 염소 처리하는 것, 혹은 그것이 유전자 조작 곡물 식품을 수출하는 것에 관한 우려들은 정당한 건강 두려움인가 아니면 그저 미국 농산물들을 막으려는 구실일 뿐인가? 그리고 미국이 훨씬 더 낮은 동물 복지 기준들을 가진 나라들로부터의 식육 제품들이나, 불충분한 인권 기록들을 가진 나라들로부터의 제품들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가?

수입 제품 기준들이 그것들의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보다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데 아주 쉽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WTO 무역 분쟁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이다. 참으로 건강이나 안전에 관해 정당한 우려들이 있는 곳에서는, (제품 안전 기준들에 관해 국제 협정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다른 정책들이 그것들을 시행하는 더 나은 방식일지 모른다(Anderton 2015).

## 안보 우려들

이미 언급되었듯이, 나라들은 (방위, IT 혹은 통신 같은) 몇몇 산업이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외국인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들은 이런 기술들의 수출을 금하고 자기들 자신의 ‘전략적 (strategic)’ 산업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할지 모른다.

틀림없이, 이것들은 실제적이고 정당한 안보 우려이다. 그렇지만

만약 그것들이 보호무역주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 경제적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그것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1920년 존스법(Jones Act)은 미국 항구 사이에 수송되는 재화들이 미국이 만들고, 소유하며, 운영하는 배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명시된 목적은 미국이 전시에 다른 목적에 맞게 고칠 수 있을 상선을 유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그것은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그리고 외국 선박으로 도달하는 재화들을 미국 배로 다시 실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화물 수송의 가격을 올렸다. 이것은, 하와이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먼 지역들에 특히 심하게 타격을 주었다. 한편, 배들은 미국 관여에 관한 규칙들 때문에 건조(建造)하는 데 더 비용이 들게 되었고, 그것들이 군사적 용도를 훨씬 넘어설 때까지 그것들을 더 오랫동안 운용하도록 선박 회사들을 자극하였다. 미국 해운업을 보호하기는커녕, 존스법은 대개 그것을 파괴했다(Krueger 2020: 제13장).

## 제재들

무역 장벽들은—잠재적 혹은 활동적인 적대 강국들의 경제를 약화하거나, 그들의 행동에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무역 전쟁들은 심지어 적국 사이에서 힘의 시험으로서—노골적인 군사적 충돌보다 덜 해롭지만, 그런데도, 해롭다—사용될지도 모른다. 그 점은 많은 사람에게 나라들이 자기들의 공급품들이 충돌—자신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충돌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지역에서 국제 무역을 붕괴시키는 다른 나라 사이의 충돌도—을 통해 차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량과 같은, 필수품들

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확신시켰다. 국내 산업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를 지탱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수입 통제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계속된다.

하나의 특별한 경우는 국제 정치 갈등이 일어나고 통상(通常)의 외교 협상이 붕괴할 때 하는 무역 장벽의 설정이다. 한 예는 2006년 이란에 대한 UN의 무역 금지(trade embargo)인데, 이것은 이란에 압력을 끼치어 그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지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금수(禁輸) 조치하에서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모든 수입(과 때때로 다른 나라로의 모든 수출)이 금지되는데, 이것은 무역국들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역 제재는, 빈약한 인권 기록들을 가진 것들과 같은, 불량 정부들에 압력을 가할 (전쟁을 제하고) 유일한 방식일지 모른다. 그러나 제재가 고상한 목적 뒤에 보호무역주의를 숨기고 있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비난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들은 종종 국제 무역 장벽을 부과할 UN 결의를 구하는데, 이것은 그들에 국제적 정당성이 있는 조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제재는 하여간 올바른 대상을 치지 않을지 모른다. 부유한 정부 엘리트들은 대개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보통 시민들은 더 높은 가격이나 수입품들의, 때때로 식품과 의약을 포함하는 필수품들의 부족에 직면할지 모른다. 비록 무역 전쟁이 군사 전쟁보다 더 낫다고 할지라도, 양쪽 다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무역을 상호 의존과 이해(理解)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개방해 두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 10 국제 수지 적자

### 국제 수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관세 장벽을 세울 유혹을 받을지도 모를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 사이 국제 수지(balance of payments)에서의 부족(혹은 적자(deficit))이다.

한 나라의 국제 수지는 일정 기간에 걸친 자기의 모든 국제 거래 계정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인 거래를 기록하는 부분은 **경상 계정(current account)**이라 불린다. 토지와 재산 혹은 주식과 채권 같은, 자산에서의 거래는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이라 불린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 요소를 더 나누어, 오직 비금융 자산에 대해서만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을 사용하고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 계정(financial account)’을 사용한다.)

자기가 수출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는 나라는 소위 **경상 계정 적자(current account deficit)** (때때로 느슨하게 **국제 수지 적자(balance of payments deficit)**라고 불린다)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기가 수출의 대가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그 부족은 갚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정확하게 기록된다면, 경상 계정 적자는 자본 계정에서 동일한 흑자로 상쇄되어야 한다. 아주 간단하게, 자기가 자기의 수출의 대가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에 쓰는 나라는 차액을 자금 조달

하기 위해 자산을 팔거나, 빚을 져야 한다. 그러한 상황은 정치적 곤경을 제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한 나라가 빚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적자는 수출로부터 더 많이 벌거나 수입에 더 적게 씀으로써 메울 수 있다. 애석하게도, 그 생각은 나라의 정치인들을 보호무역주의로 부추길지 모른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자기들의 수출 산업들에 보조금을 주어, 자기들의 재화들이 외국 고객들에게 더 싸게 하거나, 수입품들에 관세와 수입 할당을 부과하여, 외래품들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덜 매력적이거나 덜 이용 가능하게 할지 모른다.

애덤 스미스의 중상주의 반대론을 극도로 간결하게 말하면: 수입은 크리스마스 아침이고, 수출은 정월의 마스터카드 청구서다.

—P. J. 오루크 (2007)

## 적자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국제 수지 적자가 항상 문제는 아니다. 만약 나라가 자기의 부채에 대해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돈을 증가하는 변영을 낳는 투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그 투자가 성과를 올릴 때 자기의 빚을 갚을 수 있다—기업이 자기의 산출을 개선할 새로운 장비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과 똑 같다.

예를 들어, 19세기에는, 미국이 큰 적자를 내었지만, 석유 탐사에 그리고 수송과 거래를 증대할 도로와 철도에 투자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그것은 세계의 지도적인 수출국이 되었었다. 대조적으로, 1990년대에 여러 동남아시아 나라는 자기들의 성장이

유지할 수 있을 것보다 더 많이 빌렸고, 그다음 자기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이 빌렸다. 그들의 적자 증가는 1997-98년 ‘아시아의 위기(Asian Crisis)’에 이르렀다.

적자는 나쁜 정책보다는 또한 자연적인 시장 변화를 반영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영국은 석유 및 화학 제품을 수출하는데, 이것들은 국제적으로 달러로 거래된다. 2016년 영국의 EU 탈퇴(Brexit) 투표 전에, 이 재화들의 달러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것은 영국 수출 이득을 줄였고 그래서 그것의 적자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EU를 탈퇴하는 투표 후에, 영국 파운드의 가치는 달러에 대비해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의 수출품이 버는 달러는 국내에서 더 많이 살 것이지만, 수입품은 (이제 영화(英貨)로) 내려갔는데, 모두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저축과 투자도 또한 한 나라의 적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의 저축은 기업들이 자기들의 생산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 만약 저축이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 아래로 떨어진다면, 기업들은 더 많은 자본을 해외에서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저축하기보다는 쓴다면, 그것은 수요를 올리고 수입품을 빨아들인다. 그 결과는 더 높은 경상/금융 계정 적자이다.

회사들의 투자에 자금 조달할 국내 저축의 부족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속적인 적자를 내는 하나의 이유이다. (비록 예외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달러들을 인쇄함으로써만으로도 그 초과 지출을 자금 조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것들이 국제 무역의 주요 통화로서 끊임없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치를 유지한다.) 대조적으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흑자(surplus)를 내는데, 부분적으로 유로의 창설이 그것의 수출업자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지만, 또

한 높은 국내 저축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도 역시 투자에 대한 저축의 과다가 있고, 그래서 저축자들과 자금 운용 담당자들이 해외에서 더 이윤이 남는 투자를 찾아야 해서, 일본에 경상 계정 흑자지만 자본 계정 적자를 준다.

## 국가 간 적자

세계에 대한 한 나라의 국제 수지가 아주 많은 서로 다른 요소의 결과이고 완전히 상서로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적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설픈 변명이다. 어떤 단일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든 한 나라의 적자는 더욱더 어설픈 변명—비록 정치인들이 그것을 종종 사용할지라도—이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자기 나라의 무역 적자를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고 수입 장벽을 세울 이유로서 열거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또 하나의 나라에 대해 적자를 내는 것이 예상 밖이 아닐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 흑자를 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어떤 나라들로부터 의복, 전자 장치 그리고 자동차를 수입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식량, 석유, 금융 서비스 그리고 항공기를 수출한다. 그것은 중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 적자를 내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흑자를 낸다.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면: 나는 나의 미용사에 대해 적자를 내는데, 비록 그 미용사가 내게서 아무것도 사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에게 이발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때 나는 나의 고용주들에 대해 흑자를 내는데, 비록 내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사지 않을지라도 이들은 나의 노동의 대금을 치른다.

양자 무역 수치들은 또한 계산 특이성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외래품들의 국적은 그것들이 나타나는 마지막 나라로서 기록된다—설사 그 마지막 단계가 그것들의 최종 가치의 단지 일부분만 이바지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종종, 최종 나라는 중국이고, 거기서 많은 제품이 조립되고 포장되는데, 이것이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흑자를 오해하기 쉽게 과장한다(Hochberg 2020).

## 환율

도널드 트럼프의 중국 비판 중 또 하나는 그것이 자기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여, 중국의 수출품들을 미국인들에게 더 싸게 하고 미국의 수출품들을 중국인들에게 더 비싸게 한다는 것이었다.

환율은 다른 통화로 환산한 한 통화의 가격이다. 말하자면, 당신이 1달러로 얼마나 많은 파운드나 유로나 루블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오늘날 대부분 통화는 외국환(‘외환(forex)’) 시장들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된다; 그리고 어떤 다른 시장 재화와도 똑같이, 그것들의 가치들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만약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미국 재화들을 사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미국 생산자들에게 그것들의 대금을 치르기 위해 달러를 살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달러의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만약 미국인들이 외래품들을 사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것들의 대금을 치르는 데 필요한 외국 통화를 사기 위해 달러를 팔아야 할 것이고, 달러의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환율은 또한 수요와 공급에서 단기 변동을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엄동(嚴冬)에는, 햇빛이 찬란한 관광 목적지들의 통화는 더 많은 사람이 긴 휴가를 예약함에 따라 오를지 모른다. 혹은 만약 한 나

라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면,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자하여 더 높은 이자를 얻기 위해 그것의 통화를 더 많이 살지 모른다. 시장들은 또한 투기를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만약 투기자들이 한 나라의 통화가 내려갈 것 같다고 믿는다면(예로 영국이 행한 2016년 영국의 EU 탈퇴(Brexit) 투표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미리 팔지 모른다.

## 정부 개입

그러나 이런 시장 압력들뿐만 아니라, 정부들도 역시 가격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기들 자신의 것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고팔아, 외환 시장들을 조작한다. 그들은 어떤 일시적인 혼란으로 일어난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혹은 자기들의 경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것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가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비난했듯이, 또한 무역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할지도 모른다. 가장 흔히, 그들은 자기들의 수출품들을 외국인들에게 더 싸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증대하고, 수입품들을 국내 고객들에게 더 비싸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 자기들의 통화에 인위적으로 낮은 환율을 주려고 시도할지 모른다. 그러나 더 쉬운 매상고는 수출업자들을 자기 만족적으로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할지 모르고, 더 높은 수입 가격은 국내 소비자들과 때로는 또한 생산자들도 해칠 것이다. 더군다나, 만약 평가 절하가 크고 갑작스러우면, 더 심한 결과들이 있을지 모른다: 벨라루스가 구소련 공급 사슬의 붕괴 후 1992년에 평가 절하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100퍼센트 넘어까지 치솟았고 이자율은 45퍼센트에 달했다.

요컨대, 정부들은 무역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들의 통화를 조작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현실이, 종종 고통스럽게, 다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5부

오늘날의 무역



## 11 돌아온 자유 무역

### 전후 무역 헌신

보호무역주의가 평화 시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매력적일지 모르건 그리고 국가 통제들이 두 개의 세계 대전 동안 얼마나 필요했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서양 강국들은 무역 장벽이 자멸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파괴적인 충동을 자극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소비에트 블록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따로 남아있기로 선택했을지라도, 서양 국가들은 자기들의 무역망들을 재건하고 자기들을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대해 협력하였다.

GATT는 무역의 편익들에 대한 신념에 따라 그리고 더 큰 협력이 국가 사이에 이해(理解)와 평화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 따라 움직였다. 그것은 규칙들에 기반을 둘 것이고, 그런 규칙들을 받아들이는 누구에나 개방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는 억제될 것이고, 다른 나라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어떤 참가국이든 바로 그 조건을 [GATT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조항).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관련 국가의 수는 1948년 23개에서 오늘날 16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WTO 2016). 1947년에 평균하여 20퍼센

트 이상이 되었거나 (Brown and Irwin 2015), 몇몇 계산으로는, 40퍼센트가 되었던(세계은행 1987) 세계 관세율은 2017년까지는 단지 2.6퍼센트만으로 내려갔었다(세계은행 2019).

GATT는 그것이 제도로서 달성한 것에 대해서만큼 그것이 과정의 면에서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할지 모른다. GATT는 상업 정책들의 기준을 정했고 더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의 목표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가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서 있었다. 규칙들의 집합으로서, GATT는 관세 수준들이 단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했다. ...

—더글러스 A. 어윈 (1995)

무역 자유화는, 주요 국가들을 세계 무역망에 끌어들이고 투자, 사람 그리고 아이디어의 흐름에 대한 장벽을 줄인, 일련의 정치 개혁으로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이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직후 자유화했다; 유럽에서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무너졌고 동구권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서방측과 무역하기 시작했다; 개발도상국들이 더 개방적인 무역을 위해 수입 대체 정책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인도가 1991년에 자유화 경제 개혁들을 도입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 1993년에 무관세 ‘단일 시장(single market)’으로 이동했다.

## 시야의 확대

1948년부터, GATT의 회원 수는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것이 미치는 범위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후기에, 그것은 농업(항상 가장 논쟁적인 쟁점 중 하나였다)에서와 서비스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

했었는데, 후자는 세계 무역의 훨씬 더 중요한 성분이 되었었고, 전문직 기준, 지적 재산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관심을 자극했다.

GATT는 주로 일련의 협상 라운드였지만, 1980년대에, 많은 사람은 그것이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뒀으므로 더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이것은 1995년 WTO의 창설과 보조금, 지적 재산, 제품 기준 그리고 다른 쟁점들에 관한 협상의 확대로 이어졌다. 전문가 WTO 위원회들은 지금 무역 분쟁들을 재정(裁定)하고, 나라들을 준수하게 강제할 수 없지만, 만약 그들이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

WTO의 창설 배후에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높은 고용, 복지 그리고 윤리 기준들에 대한 자기들의 헌신 탓으로 덜 엄격한 기준들을 유지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자기들보다 더 싼값으로 팔고 있다는 산업화한 나라들의 우려였다. 그들은 국가들이 이것을 다루는 것을 새로운 기구가 도울 것을 희망했다.

덧붙여서, 물리적 부품들의 더욱더 세계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디자인, 투자 금융, 조립, 수송, 마케팅 그리고 유통 같은 투입들도 포함하는 세계적인 가치 사슬들의 출현과 함께, 생산이 진정으로 국제적으로 되었었다. 무역 협상들에서 이 투입들을 반영하고 전 과정에 걸쳐서 품질 기준들을 확실히 하는 욕망이 있었다. 이것은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기준들은 산업들 자체에 의해 설정되지만, 다른 것들은 정부들에 의해 규정되고, 많은 나라에 걸쳐 펼쳐져 있는 생산 사슬들과 더불어, 한 나라에서의 문제들이 전체 망(網)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서로 다른 접근법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히 흔하지만, 국제 무역이 대체로 더 자유롭게 되었다. 서로 다른 나라와 지역은, 비록 국내 정치 현실을 인정하는 속도로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발견했다.

**아시아 개입주의.** 심지어 아시아의 호랑이 경제들(Asian tiger economies)조차도 거의 순수 자유 시장 자유주의의 모델이 아니었다. 그들의 정부들은 자기 나라가 수출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것 같은 부문들을 종종 식별했고, 투자를 그것들 안으로 돌렸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지도적인 예는 일본의 통상 산업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인데, 하기가 그것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성공이 과장되어 있기는 하다: 우리는 만약 자원들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지 않았더라면 어느 다른 산업들이 성공했을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일본은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지 않을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경제는 더 통합되었고 그러므로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더 쉬웠기 때문이다.

중국도 역시 1978년의 개혁들 후에 자기의 시장들을 국제 무역에 개방했는데 지금은 그 결과로 빠르게 성장한 거대한 수출국이다. 다시, 그것은 자기의 수출 전략을 우연에 맡기지 않았고 크게 개입한다—예를 들면, 태양 전지판 같은 선도 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비판자들이 주장하듯이) 자기의 제품들을 수입업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 자기의 통화를 조작한다. 이것은 해당 부문들에 이익이 될지 모르나—그러나 이것은 중국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을 희생시키고 생긴다.

**경제특구.** 무역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전략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SEZs)의 창설이다. 이 지역들은 다른 곳에서 이용될 수 있을지 모르는 것보다 더 관대한 규칙들을 적용함으로써 무역과 내부 투자를 촉진하려고 노력한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대략 3,000개의 SEZ가 있다. 그것들은 마카오,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자유항들과, 아일랜드의 섀넌(Shannon) 같은 지구(地區)들을 포함하는데, 후자는 제품들이나 부품들을 수입하고, 그것들을 가공 처리하거나 조립하며, 그다음 그것들을 다시 수출하는 데 전문화하는데, 그것들을 보통의 세관 관료제의 지배하에 두지 않고서 그렇게 한다.

SEZ들은 나라들에 해외 경쟁에의 완전한 개방을 피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관리되는 방식들로 허락한다. 그것들은 또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성가신 지방세나 규제에 대한 약간의 보호를 허락하기도 한다(Poon and Rigby 2017: 제6장).

**지역 무역 협정.** 완전한 보호무역주의와 세계와의 개방 무역 사이에서 또 하나의 중간점은 지역 무역 협정(regional trading arrangements)이다. 이것은 일단의 나라가 FTA를 맺고, 합의된 범위의 재화(혹은 모든 재화)가 그들 사이 장벽이 거의 없이 수입되고 수출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과 FTA를 하고, EU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과 FTA를 한다.

이상적으로, 지역 무역 협정은 당사국 사이 보호무역주의를 줄이면서 비회원국들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EU는 참가국들이 서로 사이에 자유 무역하

지만, 세계의 나머지에 공통 관세를 부과하기로 동의하는 *관세 동맹* (customs union)이다. 그러므로 무관세 내부 ('단일(single)') 시장은 EU 회원국 사이에 경쟁, 전문화 그리고 무역을 촉진하여, 복지와 효율 이득 양쪽 다를 가져오고, 세관 관료제를 차단한다. 그러나 오렌지 주스, 낙농업 그리고 다른 농산물들에 대한 EU의 높은 관세들은 명백히 EU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 가난한 나라들의 농민들에게 얼마나 부당하건, 어떤 EU 회원국도 그들에게 더 나은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부 관세의 결여가 동맹국 사이 무역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점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EU 회원국들은 자기들이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관료적 지연이나 성가신 제품 기준 서류 작업 같은 비관세 장벽들을 종종 사용한다.

## 지역 무역 협정의 실례들

비록 모두가 *자유 무역*(free trade) 협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계 곳곳에서는 400개를 넘는 무역 협정이 있다. 공동의 이익, 역사 혹은 언어가 있는 곳에서는, 지역 협정은 창설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지 모른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부채 수준, 인플레이션 혹은 조세 정책, 또는—영국이 EU를 떠나는 사례에서 같이—그냥 세계관 같은, 상당한 차이점이 회원국 사이에 생긴다면 무역권들은 쪼개질 수 있다.

아래 예들은 그러한 협정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들 회원국들 안에서의 정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면, 잠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과 EU 사이에서 제안된 거래는 대개 미국 제조업자들로부터의 경쟁 우려와 EU 노동조합들과

환경 단체들로부터의 기준 이의 때문에 실패했다.

예들은 또한—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서양 고객들에 덜 의존하게 되려는 시도에서나 중국이 환태평양 지역(Pacific Rim)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에서 같이—지정학의 중요성도 반영한다. 자유 무역은 그 자체를 봐서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먼 꿈이다.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최초 1950년대의 석탄 및 철강 협정들로 날짜가 거슬러 올라가서, 27개 EU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통합된 무역권이 되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똑같은 통화(유로)를 공유하고 모든 국가가 널리 공통적인 기준과 규정을 가진 단일 시장에 속한다. 그러나 단일 시장에 (서비스와 같은) 공백들이 있고 수많은 비관세 장벽이 내부 무역에 마찰을 일으킨다. 이 블록은 특히 수입 농산물에 대해 또한 높은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유지하기도 한다.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1994년에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FTA를 형성했다. 상업상의 여행이 수월해졌고, 많은 관세가 제거되었으며, 3개국은 서로에게 ‘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지위(그들이 서로에게 자기들이 다른 나라들에 주는 것보다 혜택이 더 적은 조건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의미했다)를 부여했다. 그들은 또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도 했다. 협정은 무역을 증가시켰고 더 낮은 가격을 가져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2017년에, NAFTA는, 대개 미국의 압력으로, 재협상 되었는데,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들이 멕시코로 이동하는 것을 걱정했다. 제품에 대한 몇몇 수입 할당과 관세가 인상되었는데, 하기가 환경 및 고용 기준들에 관한, 그리고 디지털 무역과 지적 재산에 관한 새로운 협약들도 또한 있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1967년에 창설되어, 이 연합은 이 지역에서 무역, 성장 그리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에서 1989년에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생겼는데, 이것은 농산물과 기본재(primary goods)의 지역 시장들을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21개국의 연합체이다. 바로 그 참가국의 다수는 2020년 RCEP 협정(아래)의 회원국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2020년에 형성되어, 이 무역 협정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필리핀 같은 미국 환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저관세 협정을 맺게 한다. 그것은 태평양에서 미국 영향력을 희생시키고 가치 사슬들을 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남미 공동 시장**(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 이것은 1991년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그리고 파라과이 사이에 창설되고, 다른 남아메리카 나라들을 준회원국으로 하는,

관세 동맹이다. 이것은 이 나라 사이 사람과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

**독립 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1991년에 창설되어, 12개 전 소련 나라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경제 협력을 장려하지만, 또한 정치 및 군사 협력도 장려한다. 5개 회원국은 관세 동맹을 운영하지만, 다양한 회원국 안의 정치적 사건들은 단일 시장의 창설을 막았다.



## 12 초국적 기업들

세계 무역에서 막대한 확대는 다국적(multinational) 혹은 초국적 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의 융성을 보였다. 국제적이어서, 그것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 협력들로 가능하게 된 세계적 가치 사슬들(global value chains)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비판자는 TNC들이 너무 강력하게 되었고 국가 정부들이 규제하고, 통제하며, 과세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세계적 가치 사슬들을 관리하기

오늘날 모든 종류의 재화 생산에서, 서로 다른 제조업 작업을 다른 나라들에 외주하는 것이 아주 보통이게 되었다. TNC들은 이 세계적인 생산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부품과 서비스—연구 개발, 자원 소재 탐색, 제조, 조립, 판매, 마케팅, 광고, 금융, 수송, 물류, 폐기물 관리, 법률 자문, 기타 등등을 포함한다—를 모으는 데 좋은 처지에 있다. 그것들은, 자회사들, 계약자들, 합작 모험사업 동업자들, 대리인들, 자문가들, 대학들, 비영리 단체들 혹은 정부 기관들을 포함하는, 똑같이 광범위한 서로 다른 조직과 함께 일하고 그 조직들을 모은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다른 법률, 규정, 조세, 문화 그리고 기능 수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나라에 걸쳐 그것을 한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세계적 가치 사슬들이 자연적으로, 혼자서

발생한다고 상상한다. 사실상, 그러한 고도로 정교한 구조물들은 우연히 합쳐지지 않는다. 생산 과정의 많은 부분 중 어느 것의 공급을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최선인지 누군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약 제도가 단일의 기업에 의해 행해지면 규모의 경제가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전문적인 기업과 나라 사이에 나누어지는 것—말하자면, 숙련 노동 국가들에서 특수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값싼 노동 국가들에서 조립이 행해지는 것—이 더 나은가? 그 해답들이 무엇이건, 생산 사슬에서 모든 다양한 요소는 설계되고, 자금 조달되며, 만들어지고, 조립되며, 완성되고, 포장되며, 수송되고, 시장에 내놓으며, 그리고 다양한 규칙과 다양한 소비자를 가진 다양한 범위의 나라에 팔려야 한다. 그것은 모두, 자기들이 일하는 시장들에 관해 국제적인 지력 범위와 깊고, 직접적이며, 최신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에 의한 의식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TNC들은 이 모든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

## TNC들의 기원

이것은 이런 종류의 국제 생산 사슬이 TNC들을 발생시킨 이유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 세기 동안, 한 나라에서 원료들이 생산되고, 두 번째 나라에서 가공 처리하기 위해 수출되며, 그다음 다른 나라들에 팔렸다. 메디치 은행(Medici Bank)은 15세기만큼 오래 전에 유럽에 걸쳐 경영되었고, 알려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자본을 제공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Dutch East India Company)는 무역망뿐만 아니라 초기 TNC이기도 했는데, 향신료, 커피, 설탕 및 포도주의 생산에, 그리고 심지어 조선(造船)에

조차도 종사하였다(Poon and Rigby 2017: 제3장). 18세기와 19세기에, 면섬유는 북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생산되었고, 직물로 방직하기 위해 영국으로 가져갔으며, 그다음 의복으로 만들어져 유럽, 남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팔렸다. 이런 운영 몇몇은 오직 중상주의 무역 통제들, 군사력의 사용 혹은 노예 노동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 규모로 생산한다는 생각이 주입되고 있었다.

확실히, 국제 생산의 규모가 바뀌었다. 그것은 증기선으로 증대되었는데, 후자는 제품들과 부품들의 수송을 더 싸고, 더 빠르며, 더 믿을 수 있게 하였다. 전신(電信)용 해저 케이블, 그다음 전화, 텔렉스, 팩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국제적 운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하였고 다수의 세계적 활동을 조정하는 비용을 줄였다. 이내, TNC들은—석유와 광업(예,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셸(Shell), 리오 틴토(Rio Tinto))에서 시작해서, 그다음 제조업(싱어(Singer), 지멘스(Siemens), 코닥(Kodak)), 식품(네슬레(Nestlé), 유니레버(Unilever)) 그리고 더욱 최근에는 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비자(Visa))까지—모든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당연히, TNC가 존재하고 성공하려면, 국제적 운영의 편익이 그렇게 하는 비용과 위험보다 더 커야 한다. 초기 시대에는, 그런 위험이 컸지만, (부분적으로 국제 협정들 덕분에) 해외 시장들에의 접근이 더 쉽고, 더 값싸며, 더 안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위험과 비용이 내려갔다.

무역 제한을 줄이려는 전후 조치들은, 나라들을 재촉하여 자기들의 비교 우위에 집중하게 하였는데, 생산자들이 최상의 공급자들을 찾음에 따라 이 국제화를 진척시켰다. 1980년대 중반부터, 국경을 넘는 투자, 생산 그리고 협력이,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빠르게 증가했는데,

해외 직접 투자의 반 이상이 지금 그리로 간다. 심지어 소위 ‘초국적 지수(transnationality index)’조차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해외 자산, 판매액 그리고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반을 두고 있다(UN 무역 개발 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20). 예를 들어, 핀란드의 노키아(Nokia), 영국의 보더폰(Vodafone) 그리고 미국의 안호이저-부시(Anheuser-Busch)에 대해서, 그것은 약 90퍼센트이다.

## 불확실한 국경

긍정적인 면에서, 국제적 운영은 생산자들이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을 취하고 세계적 자원들을 사양 시장들에서 성장 시장들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생산성과 진보를 증대한다. 그러나 몇몇 TNC는 수입과 이윤을 낮은 조세 관할 구역들로 이동시키는 데—그리고, 유니언 카바이드(Union Carbide)가 인도 보팔(Bhopal)의 자기의 살충제 공장에서 일어난 1984년 가스 폭발에 대해 그랬듯이, 심지어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조차도—자기들의 세계적 구조를 사용한다고 비난 받았다.

자기들의 국제적 분포와 세분화한 운영들 바로 그 때문에, TNC들의 국적과 국경은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노키아, 보더폰 혹은 안호이저-부시가, 자기들의 거의 모든 운영이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로 핀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 회사인가? 심지어 핵심 기능들조차도 모두 공식적인 ‘본사(head office)’에 집중되지 않을지 모르고 전 세계에 걸쳐 분산될지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땅의 어떤 단일 부분도 모든 다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운영되는 지역들에 대한 그것들의 영향력은 어찌 되는가? 많은 다른 무역 중심지와 같이, 예를 들면, 싱가포르를 TNC들에 고도로 의존한다. 그 점은 그것[싱가포르]에 밝은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소수의 거대한 기업이 자기들의 국제적 사업을 운영하기로 선택하는 방법에서의 어떤 변화들에도 취약하게 하는가?

한 나라에서 운영되는 TNC들이 외국 정부들의 지원을 받을 때 그리고 그런 정부들의 외교 정책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있을지 모를 때, 그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확실히 잠재적인 위험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강력한 정부들은 자기들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의존을 쌓아 올리는 데, 혹은 호의를 사서 자기들의 지정학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인 야망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순종을 얻는 데, 자기들의 TNC들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어쩌면, 영국 및 네덜란드 정부들이 수 세기 전에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자기들의 국가 후원 TNC들을 사용했던 방법의 현대적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TNC들의 존재가 세계 곳곳에서 그것들의 동업자 국가들의 국내 산업들에 실제로 좋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 그 이유는 외국 투자가 그리고 가치 사슬에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온 정보, 아이디어, 과정 및 기법의 공유가 국내 생산성을 올리고, 성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외국 회사들의 실재에서 10퍼센트 증가가 국내 공장들의 생산성을 0.5퍼센트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견되었다(Haskel 등 2002). 영국의 파산하는 자동차 산업은 대개 1970년대-90년대에 더 효율적인 일본 기업들 혼다, 닛산 그리고 도요타가 거기

에 새 공장들을 창설함으로써 구제되었다. 다시, 이것은 영국 자동차 제조 도시들을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및 재정 결정들에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새로운 기법, 높아진 생산성 그리고 고용 증대는 이미 영국 경제에 극히 긍정적이었다.

## TNC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러나 비판자들은 TNC들의 세계적 규모로 인해 그것들이 개별 정부들에 의해 통제될 수 없게 되고 그것들이 많은 나라에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미국 무역의 약 ⅔는 TNC들이 이끈다고 생각되고, 많은 다른 선진 경제도 그것들에 비슷하게 의존한다. 그것들은 또한, 은행업, 법률 서비스와 회계 서비스 같은, 서비스들에서도 상승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세계 곳곳의 기업들이 적합한 국제적 자문과 지원을 자기들의 국제적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결합하였다.

인간의 조직 생활의 근본적인 단위로서 국민 국가는 주요 창조력이기를 그만두었다. 국제 은행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국민 국가의 정치적 개념들보다 훨씬 우수한 용어들로 행동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1982)

그러나 이 영향력은 과장될지 모르는데, 세계적 가치 사슬들의 복잡성이 ‘외제(foreign)’ 품과 ‘국산(domestic)’ 품을 구별하는 것을 ‘외국(foreign)’ 기업과 ‘국내(domestic)’ 기업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어렵게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이중 계산에 이를

수 있다.

실례를 위해, 어느 나라가 \$1 가치가 있는 재료들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그것은[그 나라는] 그것들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거기서 그것들에 공들여서 \$2 가치가 있는 부품들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은 그다음 제3의 나라로 수출되고 그 나라는 그것들을 \$3 가치가 있는 완성품으로 만드는데, 그 후 그 제품을 최종 고객에게 수출한다. 단지 \$3의 가치만이 창출되었지만, 무역 기록에서 외관상 총계는 그것의 두 배( $\$1+\$2+\$3 = \$6$ )이다. 현실 세계 예를 들면, 대부분 ‘US(미국)’ 자동차는 대개 외국산 부품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부분 가치는 이중 계산되어, 마치 세계 경제에 대한 TNC들의 공헌(과 영향력)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보이게 한다.



## 13 무역과 도덕

### 무역의 두 견해

많은 사람에게, 국제 무역과 세계화는 악이다. 자본주의의 다른 표현들과 같이, 그것들은, 이타주의와 협동이 아니라, 탐욕과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여겨진다. 특히, 세계화는 오직 부유한 나라들과 대기업들에만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것들은 현지 시장들을 억누르고, 현지 생산자들을 파산시키며,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을 강제로 노동자 착취 공장들에 넣고, 정치인들과 연고 관계를 형성하며,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자기들의 초국적 구조를 사용한다고 비난받는다.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견해를 취한다. 그들은 경제 현실이 전혀 완전하지 않다고 받아들인다: 기업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연고자들을 통해 특권을 정말 획득하고, 변화는 분열을 정말 가져온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이 현실이 반대 환상보다 더 낫다고 여전히 믿는데, 왜냐하면 무역과 상업이 자발적인 교환, 상호성, 존경 그리고 다양한 개인 사이 평화로운 협동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누구도 어떤 집합적 몽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지 않는다(Butler 2015).

상인은 ... 사람들을 주인이나 노예로 대우하지 않고, 독립적인 동등자로 대우한다. 그는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강제적이지 않고, 강요되지

않는 교환—자기를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로운 교환—으로 사람들을 대우한다. 상인은 자기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대금이 치러지기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만 대금이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아인 랜드 (1964)

자유주의자들은 무역과 상업이 협동을 장려하는데, 왜냐하면 양측 다 이익을 얻기 때문—이고 그 과정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증진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두려움과 적의를 촉진하기는커녕, 무역은 관용을 촉진한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무역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무역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Butler 2013).

## 무역과 자유주의 가치들

실험들은 시장들이 더 광범위할수록 사람들이 서로 더 신뢰한다는 점을 보여주어(Heinrich 2016), 무역이 국가들 사이에서도 협동, 이해(理解) 그리고 신뢰를 촉진한다는 낙관론의 근거를 우리에게 준다. 연구들은 무역이 심지어 공정과 평등을 촉진하고, 민족주의를 억제하며, 인종적 및 국제적 충돌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기조차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Wright 2018). 무역국들은 개인적 및 정치적 자유, 개인의 으뜸, 최소 강제, 법의 지배, 개방성 그리고 자유 언론 같은 자유주의 가치들을 더 공유할 것 같다(Butler 2015).

비록 무역이 확실히 이 자유주의 가치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보존하는 제도들(시민 사회, 제한된 정부, 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독립된 법원들과 같은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 아마도 그것들을 견고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먼저 그것들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 가치들과 제도들의 채택이 무역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번영이) 번창하고 확대하게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이 더 그럴싸한 것 같다.

따라서, 경제사가(經濟史家) 데어드러 맥클로스키(Deirdre McCloskey)는, 대부분 인간 역사 동안, 보통 인간이 그저 생존 수준들에서만 살았다고 지적한다. 그다음, 갑자기, 약 1750년부터 평균 소득이 이륙하기 시작했다. 1800년까지는 보통 성인인 세계 시민은 하루에 약 \$3를 벌었다. 오늘날에는 그것은 하루에 \$50이다. 그 똑같은 시간에, 세계 인구는 7배 증가했다—인류가 이제 자기가 1800년에 생산했던 것 100배 이상의 부를 생산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대(大)풍요화(Great Enrichment)’는, 맥클로스키는 말한다, 그저 기술 진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업을 천한 것으로 보는 귀족주의적 견해를 무색하게 하는, 확대되는 중산 계급의 성장하는 자유주의(‘부르주아(bourgeois)’) 가치들에서 생긴다. 무역과 상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런 자유주의 가치들이다(McCloskey 2007).

그리고 무역 및 상업과 함께 번영이 온다. 가장 많은 경제적 자유를 가진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소득, 더 큰 성장 그리고 더 낮은 빈곤율을 가지고 있다(Gwartney 등 2017). 그리고 1800년 이래로 막대한 번영 상승이 부유한 소수 국가에 국한되지도 않았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한때 사치품이었던 물건들—버젓한 주택, 위생 시설, 조명과 난방, 여분의 의복, 여행, 여가, 연예, 신선한 육류—이 모든 사람에게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기계들은 지금 산업 생산과 집안일에서 힘든 일을 덜어낸다. 건강, 아동 생존, 장수(長壽) 그리고 교육은 모두 현저하게 향상되었다(Norberg 2017). 국제

무역이 이것에서 자기 역할을 하였는데, 경쟁을 격심하게 하였고 혁신하고 개선할 유인을 강하게 하였다.

## 무역과 평등

그러나 비판자들은 무역이 불평등을 더 나쁘게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불평한다. 확실히, 무역 장벽들이 무너지고 시장들이 확대될 때, 덜 경쟁적인 산업들에서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이다. 더 부유한 나라들에서, 다수의 그런 일자리 상실은 더 저숙련 근로자 사이에 있을 것인데, 이것이 불평등 상승의 한 원인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 무역은 잘 사는 뉴욕 투자 은행가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중서부 직물 근로자들에게는 비참하다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번영하고 다른 나라들이 더 뒤처짐에 따라 어쩔면 똑같은 일이 국제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역에 기인할지 모르는, 일자리 상실과 부유한 나라 안에서 [일자리 상실의] 결과로 일어나는 어떤 불평등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부국(富國) 불평등의 어떤 상승도 (그리고 불평등의 척도들에 관해서는 논쟁이 많다) 많은 요인의 결과이다: 무역은 그것의 설명하지 못한다(Lawence 2008).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일자리 상실의 태반은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지, 무역에 기인하지 않는다(Hicks and Devaraj 2015; Devaraj 등 2017). 무역에—그리고 특히, 일자리들이 갑자기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보는 무역 협정들에—기인하는 소수는 일시적일 것 같고, 근로자들은 다른 더 생산적인 자리들을 찾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더 뒤처지기 커녕, 몇

몇 눈부신 성공이 있었다—예를 들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근로자들은 지금 증가하는 소득과 더 큰 안전을 누리고, 인도의 가장 낮은 카스트들의 구성원들은 지금 IT에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IT는 그들의 재능을 소중히 여긴다. 참으로, 1980년대에 세계 무역이 확대되기 시작한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상승은 인류의 가장 놀랄 만한 성공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다: 세계의 소득 불평등은 산업 혁명 이래로 처음으로 감소하였다(Milanovic 2013).

연구들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 무역의 다른 편익들도 또한 드러낸다. 1950년대에는, 이미 언급되었듯이, 싱가포르, 홍콩, 남한 그리고 타이완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다. 지금은 이 ‘아시아의 호랑이들(Asian Tigers)’은 지구상에서 부유한 지역에 속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가속 성장을 경험했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생산하는 방법의 면에서, 선진국들을 빨리 따라잡고 있다. 빈곤은 떨어지고 있고, 고용은 상승하고 있으며, 삶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Dollar and Kraay 2004).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으키는 기아가 최빈국들에 여전히 일어나지만, 흉작에 기인하는 기아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실상 제거되었는데, 식량이 국제적인 경계들에 걸쳐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유전자 조작 농작물과 같은) 개선된 영농 기법들이 확대될 수 있게 하는 무역 덕분이다.

## 무역의 도덕적 가치

도덕은 오직 자유로운 개인들의 행동들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심지어 이로운 방식으로라도,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제되

는 사람은 도덕적 작인(作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 사회들, 자유 시장들 그리고 자유 무역이 도덕적 행동에 필요하다. 그것들은 또한 개인들이 자기들의 도덕적 판단을 행사할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그것들은 선한(good) 도덕적 행위들을, 그리고 수백만의 그것들을 장려한다.

도덕적 행동과 신용은 교환에서 본질적인 요소이다. 아무도 자기에 게 나쁜 가치를 준 공급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친구들에게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서비스 산업들에 사실인데, 후자는 개인 사이 직접적인 접촉을 수반하고, 세계 무역의 점점 증가하는 비율을 형성한다.

무역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전통적인 적들과도, 함께 일하고 잘 지내는 자기들의 능력을 증진하도록 장려한다. 세계화는 관용의 증가를 경험했는데, 무역이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지 않을지 모르는 개인들, 집단들 그리고 나라들에 가져오는 편익들 바로 그 때문이다. 무역은 국적, 민족성, 피부색, 성, 성적 지향, 카스트 그리고 그밖에 모든 것에 근거한 차별을 체계적으로 몰아낸다—왜냐하면 그런 것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세계적인 무역의 완전한 편익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래로 세계 무역의 빠른 확대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에 대한 관용을 확산했다. 그것은 또한 민주주의와 같은 다른 가능한 요소들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여자들, 특히 젊은 여자들의 지위 상승에 이바지하기도 했다(Stroup 2008). 그리고 그것과 함께, 무역은 여성의 평균 수명,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성 평등을 향상했다. 이 척도들에 따라, 무역이 선을 위한 힘(a force for good)이라는 점에 거의 의심이 있을 리 없다.

제6부

무역의 미래



## 14 추세와 교훈들

### 국제 무역의 편익들

**번영.** 오늘날 경제생활은 세계화되었다—혹은 더 정확하게, 비교적 자유로웠던 19세기 무역을 고려하면, 재(再)세계화되었다. 사람, 재화, 서비스, 부품, 기법, 기술, 아이디어, 문화 그리고 가치의 이동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다. 세계적 가치 사슬들은 우리 모두에 닿고,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바꾼다. 지금은 외국 자본 투자, 고용 선택지 그리고 참으로 소비자 기회에 더 접근할 수 있는 이전 가난한 나라들에서 새로운 ‘신흥 시장들(emerging markets)’이 갑자기 생겨났다. 자기들이 세계적인 무역망들로 통합되어, 그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이익을 얻었다—하루에 \$2 빈곤은 이 세계에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 같다.

**선택.** 그렇지만 성장과 소득은 단지 이야기의 반만 한다. 무역은 또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품질과 더 나은 가치 제품들, 더하여 전 세계적인 선택을 주었다. 몇몇 추정치에 따르면, 보통의 미국 슈퍼마켓은 지금 47,000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다수는 도저히 국내에서 공급자를 찾을 수 없고 오직 다른 나라들에서만 재배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다. 덜 부유한 나라들에서의 상점들도 역시 지금은 1990년대 초

기 세계화 시대 시작 전에는 그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국제적 제품들로 가득 차 있다.

**삶의 질.** 그것 이상으로, 무역은 인류의 삶의 질을 증진했는데, 사람들에게 의약과 보건 의료, 교육, 여행, 근로 기회, 음악·극장 및 경기 같은 문화 및 여가 상품, 기타 등등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가져왔다. 무역을 통해 행해진 접촉들은 아이디어, 발명품, 자본 그리고 더 나은 생산 기법이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게 하였고, 그것들과 함께 진보와 향상된 생활 수준을 가져왔다.

**진보의 가속.** 다양한 주민이 무역을 통해 맺는 연결들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통찰 그리고 방법을 관찰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삶을 고양하는 발명품들을 앞당긴다: 예를 들어, Covid-19 백신은 터키 이민자들의 자손들이 설립한 한 독일 회사가 세계 곳곳에서 과학적 지식과 처리 능력을 끌어들이 한 미국 초국적 기업과 협동하여 며칠 동안 만들어내었다(Hendershott 등 2021). 그리고 더 널리, 지식의 공유와 서로 다른 통찰과 개념의 결합은 혁신의 속도를 올리고, 끝없는 선(善)나선형(virtuous spiral)으로 인류 진보에 미치는 영향을 가속한다.

**신뢰와 평화.** 똑같이 중요하게, 무역을 통한 이런 더 큰 접촉은 일반적으로 먼 국민 사이에 더 큰 신뢰와 관용을 창출하였고,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진하였으며, 민주주의와 개방 정부를 육성하였고, 이런 편익들이 의거하는 원칙들과 제도들을 강화하였다.

**무역의 탄력성.** 확실히, 쟁점들이 지속한다. 신생 경제들이 여전히 허약할지 모른다; 근로자 착취에 관해서, 환경 피해, 문화 생존, 그리고 심지어 세계적 유행병들이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지 여부에 관해서도 여전히 의심들이 있다. 금융위기와 무역 전쟁 같은, 차질들이 있다. 나라들에 해외로부터 오는 필수품들에 의존하는 대신 더 큰 자급자족을 목표로 삼도록 부추기는 안보 우려들, 수입품들의 생산 및 윤리 기준들에 관한 논쟁들, 그리고 은행가, 회계사, 의사 등과 같은 외국 서비스 제공자들의 전문적인 기준들에 관한 의심들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상당한 보호무역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종종 보기가 어렵고 수량화하기가 힘든 방식들로 달성된다.

이것들은 모두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우려이다. 그러나 자기의 많은 편익 때문에 무역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세계 성장과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장기 추세는 명백한 것 같다.

## 추세와 도전들

지금 국제 무역 회담에 참여하는 수백의 나라 사이에는, 무역 제한을 줄이려는 광범위한 헌신이 있다. 그런데도, 그것들 각각은 완전히 개방적인 세계 무역의 확산을 막는 많은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역의 성질은 여러 해에 걸쳐 변화하여(예로, 서비스들은 그것들이 한때 그랬던 것보다 지금 무역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새로운 도전들을 초래하는데, 그것들 가운데는 다음이 있다.

**안보.** 안보 그리고 다른(어쩌면 경쟁 혹은 적대) 국가들에 대한 선진 기술의 이전 같은 쟁점들에 대한 점점 증가하는 관심 집중이 있다. 고

도 기술 재화가 전 세계에서 제조되고 교역됨에 따라,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고안된 기술들에 접근하고 이용하기가 더 쉬워진다. 예를 들면, 중국으로부터 IT를 사는 나라들은—이것으로 중국이 자기들의[IT를 사는 나라들의] 통신망들에 스파이웨어(spyware; 사용자 몰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가 더 쉬워지는지 같은—안보 함의들에 관해 더욱더 걱정한다.

**환경.** 기후와 화석 연료 사용에 관한 우려도 역시 나라들이 대안적인 에너지원들을 탐색하는 것처럼 무역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태양 에너지 시장은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독일이 지배했지만, 지금 다른 정부들도 자기들 자신 나라들의 녹색 에너지(green energy) 연구 개발에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다. 재생 에너지류의 수요 상승을 고려하면, 그것은 좋은 사업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 무역 원리들에 아주 반대다.

하여간, 더 나은 정책은, 탄소세에 대한 세계 협정을 구축하는 것과 같이, 가격 유인과 비교 우위를 이용하는 것일지 모르는데, 이것은 거래 가능한 대안 에너지의 개발을 그것에 가장 적합한 나라들에서 유발할 것이다.

**서비스들.** 오늘날 무역의 증가하는 비율은 재화들에서의 무역이 아니라, 자문, 금융, 회계, 법률, 통신, IT, 건축과 건설, 출판, 유통, 디자인, 교육, 보건 및 사회 의료, 관광과 자원 보존, 환경 관리 그리고 수송과 같은 서비스들에서의 무역이다. 국제 금융도 역시 지금 국제 무역의 중요한 성분인데, 금융 기업들이 세계적 가치 사슬들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합병하고 있다.

이 발전은 새로운 무역 정책 쟁점들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나라들은 외국 변호사, 회계사 혹은 다른 전문가들의 자격증들을 인정하기를 꺼릴지 모른다. 그것은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진정한 관심에 기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 산업들에 혜택을 주는 또 하나의 잠재적인 방식이다. 모든 그러한 장벽은 국제 무역을 더 어렵게 한다.

**평평한 경기장.** 관세가 억제되므로, 기준들은, 더욱 일반적으로, 보호 무역주의의 주된 숨겨진 형태이다. 비록 높은 고용 혹은 환경 기준들을 가진 많은 나라가 더 낮은 기준들을 가진 나라들로부터의 ‘불공정(unfair)’ 경쟁을 불평하고, ‘평평한 경기장(level playing field)’을 요구할지라도, 그들 다수는 환율 조작, 보조금, 세금 감면 혹은 정부 조달을 통해 여전히 자기들 자신의 수출 산업들을 보조한다.

실제로 ‘평평한 경기장’과 같은 것은 없다—나라들은 그저 다를 뿐이다. 부유한 나라의 사무직 근로자들은 공해 없는 환경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나라의 광부들은 자기들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지 더 걱정할지 모른다. 아마도 최상의 정책은 가치들에서 이런 차이점들을 받아들이고 나라들이 자기들의 비교 우위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의 이익은 어떤 나라에서든 그리고 일반 세계에서 극빈층에게 가장 클 것이다.

**지식 경제.** 오늘날의 확대하는 지식 경제는 다시 이전보다 더 현저한 역할을 하고 해결할 새로운 쟁점들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 보호는 논쟁적인 문제이고, 더 부유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제품들을 모조한다고(세계적인 외주로 더 쉬워지는 어떤 것) 불평한다.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은 기술이 나라 사이에 이전되는 주요

통로이다.

자유주의자에게는, 국제적인 운영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현지 생산성을 올리며, 세계적인 평등과 번영을 향상하고, 인간 진보를 증진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오직 재산권 침해와 안보 위협이라는 불리한 면들만 볼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재산권과 안보 보호에 관한 많은 국제 회담이 확립되었고, (감시대상명단과 같은) 모조 금지와 지적 재산 보호가 지금 새로운 무역 협정들에서 현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남 무역.** 또 하나의 추세는 소위 남-남 무역(South-South trade)이다. 역사적으로, 무역은 서유럽과 북아메리카가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무역한—북-남 무역(North-South trade)으로 알려져 있다—것에 의해 지배되었다. 오늘날, 무역은, 예를 들면,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사이 그리고 아시아 지역들 자체 안에서 확대되고 있다.

시간에 걸쳐, 이 성장은—설사 모든 곳에서 총무역량이 아마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할지라도—서양 나라들이 국제 무역 안에서 덜 중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려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Belt and Road project)의 개발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그것의[중국의] 막대한 투자는 개방 무역의 진정한 진척인가, 아니면 그것의 제국주의 야심의 조짐인가?

## 자유 무역 정책들에 대한 정치적 도전들

비록 오늘날의 국제 무역 토론들이 세계 무역의 광범위한 편익들을

인정할지 몰라도, 그것들은[그 토론들은] 실제로 훨씬 더 국가 및 국제 정치에 따라 움직인다.

**국내 정치.** 한 나라의 경제, 사회 및 복지 정책들은, 그리고 외국 경쟁으로 일자리들이 위협받는 근로자들로부터 그것이[그 나라가] 받는 압력은, 무역에 대한 그것의 자세에 결정적이다. 무역은 한 산업이 기술 진보, 재정상 격변, 혹은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데 대한 편리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문화, 윤리 그리고 여론은 무역 정책을 형성하는 데 경제학만큼 중요할 수 있고, 종종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의 더 넓은 편익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대한데, 왜냐하면 그것[무역]은, 국내에서와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소비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정학.** 더 큰 지정학적 우려들도 역시 무역 정책을 왜곡한다. 나라들과 때때로 나라들의 집단들은 무역을 적국들이나 빈약한 인권 기록들을 가진 나라들에 반대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할지 모르는데, 아마도 그들을 더 가난하게 할 것을 혹은 그들의 정책들을 바꿀 공공 압력을 쌓아 올릴 것을 기대하여 그들에게 필수적인 수입품들을 거부하거나 그들의 수출품들에 대한 접근을 사절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다. 때때로, 대개 현지 시장들에 대한 부유한 이웃 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지역적 무역 협정들이 설계된다. 트럼프 시대 중국과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 무역 분쟁들은 심지어 세계의 정치 및 경제 체제들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느냐에 대한 비전들이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징후일지도 모른다.

확실히, 만약 나라들이 군사 행동보다 무역 분쟁에 의지한다면 더

났다. 그러나 무역 분쟁도 역시 전 세계에 걸쳐 시민들에게 깊고 광범위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적 틀.** 만약 거래로부터의 이득이 일반화되려면, 합의된 다국적 무역 틀이 필수적이다. 시장들은 법의 지배 아래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받아들여진 재산과 계약 규칙들이 준수되고 시행된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세계 정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단지 무역 상대국들의 합의를 요구할 뿐이다.

국제 조직들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치에도 불구하고, WTO의 회원 규칙들과 분쟁 해결 절차는 아마도 이것에 대한 최선의 희망일 것이다. 서비스들에서와 인터넷 상 무역 같은 덜 유형적인 무역의 확대, 더하기 인권, 고용 기준, 지적 재산, 안보 그리고 환경 보호에 관한 상승하는 우려들을 고려하면, 필요는 긴급하다. 애석하게도, 국내법들은 이 전개들을 따라가려고 고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들에서 무역 자유화는 GATT와 WTO 양쪽 다 아래에서 합의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로 드러났다.

## 보호 압력

무역의 연구와 무역 전쟁들의 연구는 보호무역주의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보존하지도 않고, 보통 의도되지 않고 해로운 결과들을 가진다는 명백한 교훈을 가르친다. 장벽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올리고, 경쟁의 자극을 줄이며, 국내 상업들에서 원료들을 빼앗는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어떤 조치도 완전한 자유 무역보다 더 국내와

해외에서 자유의 대의를 촉진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당신이 팔 수 있고 팔기를 원하는 것을 여기에서 파십시오. 당신이 살 수 있고 사기를 원하는 무엇이든 사십시오. 그런 식으로 개인 사이의 협동은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밀턴 및 로즈 프리드먼 (1997)

그렇지만 보호무역주의의 정치적 압력은 사실보다 인식에 따라 움직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으로부터 위협에 처하는 철강 일자리의 수가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보건 의료, 식당, 사무소, 교육, 슈퍼마켓, 소매, IT 그리고 더욱 많은 부문에서 일자리 수와 비교해서 사소하다는 점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건, 일자리는 여러 이유—그것들 가운데 기술 변화, 새로운 유행, 상승하는 투입 가격, 관리 실수, 세금 상승 혹은 더 엄격한 규제가 있다—로 상실되지, 단지 무역 때문만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무역 정책에 관한 논쟁은 항상 균형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수백만의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더 넓은 선택—아주 흔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체 알아차리지 못하는 추세—을 통해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훨씬 더 적은 사람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해외 경쟁에 잃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곤경은 공청회에서 훨씬 더 눈에 띈다, 근로자들은 거리에서 자기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운동을 할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자기들 식료품류의 가격에서 깎은 몇 달러를 그리고 겨울에 신선한 과일을 살 자기들의 능력을 축하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정책 결정자들은 조용하지만 더 수가 많은 소비자의 이익보다 시끄러운 생산자 이익에 따라 훨씬 더 행동하게 될 것 같다(Butler 2012).

## 적응성의 필요

경제 변화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양초 제조업자는 가스등(燈)에 의해, 말을 탈기는 곳은 자동차에 의해, 식자공은 컴퓨터에 의해, 그리고 많은 상점은 온라인 소매상에 의해 파산하게 되었다. 인공 지능은 더욱 더 많은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붕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보는—우선 생산의 전 목적인—일반 대중의 삶에 막대한 개선을 전달한다. 무역은 그저 이 불가피하고 이로운 과정을 가속할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책 질문은 변화가 그것으로 인해 해직되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비용에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자기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정부들이 결정한다면, 그들이 구식이고 여분인 산업들의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영향을 받는 집단들이 적응하는 것을 돕는 데 집중하도록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책은 이런 그리고 다른 변화들을 조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축적일 필요가 있다. 불잡을 막대한 이득이 있다: 거의 기아를 제거한 급속히 발전하는 농업 변화; 산업 진보; 하락하는 빈곤; 상승하는 부와 평등; 과학과 진보; 인간 이해와 문화;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 무역과 그것이 근거하는 자유주의 가치들은 이런 편익들을 보급하는 데 결정적이다. 그것들은 그것들을 보호할 노력을 할 가치가 있다.

세계가 그렇게 상호 의존적일 때, 우리는 미래 생산과 무역 양식들도, 붕괴들의 잠재력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법률들이, 우리가 변화를 흡수하고, 내일을 위해 장비를 갖추며, 기회를 붙잡는 데 필요한 신축성과 준비성을 확립하는 대신에, 우리를 과거

현실에 가두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무역은 우리의 삶을 형성했다. 더욱더,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Atakuman, C. et al. (2020) Before the Neolithic in the Aegean. *Journal of Island and Coastal Archaeology* (on line).
- Brooke, J. (1990) Brazil backing computer imports. *The New York Times*, 9 July.
- Brzezinski, Z. (1982) *Between Two Ages: America's Role in the Technetronic Era*.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rown, C. P. and Irwin, D. A (2015) The GATT's starting point: tariff levels circa 194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1782 (<http://www.nber.org/papers/w21782>).
- Butler, E. (2007) *Adam Smith: A Primer*.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Butler, E. (2011) *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 London: Adam Smith Institute.
- Butler, E. (2012) *Public Choice: A Primer*.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Butler, E. (2013) *Foundations of a Free Society*.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Butler, E. (2015) *Classical Liberalism: A Primer*.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Butler, E. (2018) *An Introduction to Capitalism*.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Butler, E. (2019) *School of Thought: 101 Great Liberal Thinkers*.

-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Cain, P. J. (1982) Professor McCloskey on British free trade, 1841 - 1881: some comment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19(2): 201-7.
- Cobden, R. (1846) Speech in Manchester, 15 January.
- Devaraj, S., Hicks, M. J., Wornell, E. J. and Faulk, D. (2017) How vulnerable are American communities to automation, trade and urbanization? Ball State University Center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and the R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State Policy, 19 June.
- Dinda, S. (2004)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a survey. *Ecological Economics* 49(4): 431-55.
- Dollar, D. and Kraay, A. (2004) Trade, growth, and poverty. *Economic Journal* 114(493): F22-F49.
- The Economist* (2020) Oil and commodity prices are where they were 160 years ago, 27 April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20/04/27/oil-and-commodity-prices-are-where-they-were-160-years-ago>).
- Edmonds, E. and Pavcnik, N. (2004) International trade and child labor: cross-country eviden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www.nber.org/papers/w10317>).
- Findlay, R. and O'Rourke, K. (2007) *Power and Plenty: Trade, War and the World Economy in the Second Millenniu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sher, M. H. N. (2021) *Reality versus Rhetoric in 'Free' Trade: An Exporter's Tale*. London: Adam Smith Institute.
- Frankel, J. A. and Romer, D. H. (1999) Does trade cause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9 (3): 379-99.
- Frankel, J. A. and Romer, D. H. (2005) Is trade good or bad for the environment? Sorting out the causality. *Review of Economics and*

- Statistics* 87(1): 85- 91.
- Friedman, M. and Friedman, R. D. (1997) The case for free trade. *Hoover Digest*, no. 4.
- Gwartney, J., Lawson, R. and Hall, J. (eds) (2017)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7 Annual Report*. Vancouver, BC: Fraser Institute.
- Hartley, C. K. (2008) Trade: discovery, mercantilism and technology. I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ed. R. Floyd and P. Johnson), vol. 1.
- Haskel, J. E, Pereira, S. C. and Slaughter, M. J. (2002) Doe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boost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www.nber.org/papers/w8724>).
- Heath, R. and Mobarak, A. (2012) Does demand or supply constrain investments in education? Evidence from garment sector jobs in Bangladesh (<https://economics.yale.edu/sites/default/files/files/Workshops-Seminars/Development/mobarak-120416.pdf>).
- Heinrich, J. (2016) Do markets make us fair, trusting and cooperative, or bring out the worst in us? *Economics*, 6 August (<https://economics.com/do-markets-make-us-fair-trusting-joseph-henrich/>).
- Hendershott, R., Brook, Y. and Watkins, D. (2021) Ingenuism: a new theory of innovation (<https://ingenuism.substack.com>).
- Hicks, M. J. and Devaraj, S. (2015) *The Myth and the Reality of Manufacturing in America*. Center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Ball State University (<http://conexus.cberdata.org/files/MfgReality.pdf>).
- Hochberg, F. P. (2020) *Trade Is Not a Four Letter Word*. New York: Avid Reader Press.
- Houssa, R. and Verpooten, M. (2013)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an export ban: evidence from Benin's shrimp sector. University of Namur Centre for Research in the Economics of Development, Working Paper

1304.

- Ikeson, D. J. (2017) Antidumping 101: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steel industry's favourite protectionist bludgeon. Cato Institute blog, 27 April (<https://www.cato.org/blog/antidumping-101-everything-you-need-know-about-steel-industrys-favorite-protectionist-bludgeon>).
- Irwin, D. A. (1995) The GATT in 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85(2): 323-28.
- Klein, M. C. (2016) How many US manufacturing jobs were lost to globalisation? *Financial Times*, 6 December (<https://www.ft.com/content/66165693-ddf8-3988-b7e2-5ea887303c3e>).
- Krpec, O. and Hodulak, V. (2019) War and international trade: Impact of trade disruption on international trade patterns and economic development.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9(1): 152-72.
- Krueger, A. O. (2020) *International Trade: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 Lawrence, R. Z. (2008) Blue-collar blues: is trade to blame for rising US income inequalit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https://www.piie.com/bookstore/blue-collar-blues-trade-blame-rising-us-income-inequality>).
- Mankiw, G. (2006) Outsourcing redux. *Greg Mankiw's Blog*, 7 May (<http://gregmankiw.blogspot.com/2006/05/outsourcing-redux.html>).
- McCaig, B. and Pavcnik, N. (2014) Export markets and labor allocation in a low-income countr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www.nber.org/papers/w20455>).
- McCloskey, D. (2007) *The Bourgeois Virtues: Ethics for an Age of Commer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Dowell, A. (1999) *Laundry Lists and Love Songs: Village Life in Ancient Egypt*. Oxford: Clarendon Press.

- Milanovic, B. (2013) Global income inequality in numbers: in history and now. *Global Policy* 4(2): 198-208.
- Mohan, S. (2010) *Fair Trade without the Froth*.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Norberg, J. (2017) *Progress: Ten Reasons to Look Forward to the Future*. London: Oneworld Publications.
- OECD (2019) Trade in fake goods is now 3.3% of world trade and rising. Newsroom, 18 March (<https://www.oecd.org/newsroom/trade-in-fake-goods-is-now-33-of-world-trade-and-rising.htm>).
- Ohlin, B. (1933)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Harvard University Press.
- O'Rourke, K. (1997) The European grain invasion, 1870-1913.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7(4): 775-801.
- O'Rourke, K. (1999) British trade policy in the 19th century: a review article. University College Dublin, Department of Political Economy Working Paper ([http://econpapers.repec.org/paper/fthdublec/99\\_2f22.htm](http://econpapers.repec.org/paper/fthdublec/99_2f22.htm)).
- O'Rourke, P. J. (2007) *On the Wealth of Nations*. Old Saybrook, CT: Tantor Media.
- O'Rourke, P. J. (2009) Mr Right. *New Zealand Herald*, 17 April.
- Pirie, M. (2002) *The People Economy*. London: Adam Smith Institute.
- Poon, J. and Rigby, J. L. (2017) *International Trade: The Basics*. Abingdon: Routledge.
- Rand, A. (1964) The objectivist ethics. *The Virtue of Selfishness*. New York: Signet.
- Ricardo, D. (1817)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 Ridley, M. (2010) *The Rational Optimist*. London: Fourth Estate.
- Ridley, M. (2020) *How Innovation Works*. London: Fourth Estate.
- Schiermeier, Q. (2015) Ancient DNA reveals how wheat came to

- prehistoric Britain. *Nature* (online: news).
- Selkirk, A. (2020) The secret of civilization (<http://www.civilization.org.uk>).
- Sidwell, M. (2008) *Unfair Trade*. London: Adam Smith Institute.
- Smith, A. (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th-the-theory-of-moral-sentiments-and-on-the-origins-of-languages-stewart-ed>).
- Smith, A. (1763) *Lectures on Jurisprudence*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th-lectures-on-justice-police-revenue-and-arms-1763>).
- Smith, A.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th-an-inquiry-into-the-nature-and-causes-of-the-wealth-of-nations-cannan-ed-in-2-vols>).
- Sowell, T. (2002) *The Quest for Cosmic Justice*. New York: Simon & Schuster.
- Stiglitz, J. (2007) *Making Globalization Work*. New York: Norton & Company.
- Stroup, M. D. (2008) Separating the influence of capitalism and democracy on women's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67: 560-72.
- Summerhayes, G. (2009) Obsidian network patterns in Melanesia—sources, characterization and distribution.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29: 109-23.
- Terborgh, A. G. (2003) The post-war rise of world trade: does the Bretton Woods System deserve credit? Economic History Working Papers (78/03). Department of Economic Histor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ondon (<http://eprints.lse.ac.uk/22351/>).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0)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2 January (<https://www.bls.gov/cps/cpsaat32.htm>).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20)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vestment and Development* 27(2).
- US Trade Representative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National\\_Trade\\_Estimate\\_Report.pdf](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National_Trade_Estimate_Report.pdf)).
- Williams, A. (2019) Bronze Age discovery reveals surprising extent of Britain's trade with Europe 3,600 years ago (<https://theconversation.com/bronze-age-discovery-reveals-surprising-extent-of-britains-trade-with-europe-3-600-years-ago-125973>).
- World Bank (2016) Trade (% of GDP) |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E.TRD.GNFS.ZS>).
- World Bank (1987) *World Development Report*, 134-35.
- World Bank (2018) World Bank Open Data: Tariff rate, applied, weighted mean, all products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TM.TAX.MRCH.WM.AR.ZS>).
- World Bank (2019) World Bank Open Data: Trade (% of GD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TRD.GNFS.ZS>).
- Wright, W. A. (2018) Is commerce good for the soul? An empirical assessment. *Economic Affairs* 38(3): 422-33.
- WTO (2016)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6*.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wts2016\\_e/wts2016\\_e.pdf](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wts2016_e/wts2016_e.pdf)).
- York, E. (2020)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US tariffs and retaliatory actions. Tariff Tracker, The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tariffs-trump-trade-war/>).

## 추가적인 읽을거리

Anderton, A. (2015) *Economics*, 6th edn. Ormskirk: Anderton Press.

많은 경제학 교과서는 무역에 관한 절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최고 중 하나다: 포괄적이고, 간명하며, 직접적이고, 공정하며, 이데올로기적 의제가 없다.

Butler, E. (2011) *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 London: Adam Smith Institute.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인 1776년 책에 관한 짧고 읽기 쉬운 요약으로, 자유 무역과 전문화의 가치들에 관한 그의 설명들과 그의 중상주의 반대론들을 포함한다.

Findlay, R. and O'Rourke, K. (2007) *Power and Plenty: Trade, War and the World Economy in the Second Millennium*. Princeton University Press.

지난 수천 년에 걸친 국제 무역의 역사에 관한 대규모 포괄적인 연구. 그것은 무역의 확대와 축소, 지정학에 대한 무역의 의존, 전쟁의 역할 그리고 다른 사건들을 보여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 연결부들의 발전을 밝힌다.

Hochberg, F. P. (2020) *Trade Is Not a Four Letter Word*. New York: Avid Reader Press.

전(前) 통상 공무원이 쓴 읽기 쉬운 자유 무역 변호인 이 책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재화가 없다면 삶이 얼마나 초라할지 보여준다. 그것은 무역에 관한 잘못된 관념들을 재검토하고, 여섯 개의 일상용품의 생애 역사를 통해, 그것은 무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무역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낮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한다.

Krueger, A. O. (2020) *International Trade: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모든 측면의 무역에 관한 매우 포괄적인 개관이지만, 읽기 쉽다. 그것은 무역의 최근 역사와 오늘날 무역 협상들이 직면하는 쟁점들, 자유 무역 찬성론과 보호무역주의의 악영향들, ‘무역 적자’ 쟁점, 일자리 보호 쟁점, 통화 조작, 무역에 관한 국제 정책의 필요, 무역 협상들과 개선책들, 중국, 개발도상국들, 지역 무역 협상들, 기타 등등을 고찰한다.

Poon, J. and Rigby, J. L. (2017) *International Trade: The Basics*. Abingdon: Routledge.

또 하나의 포괄적이지만 소화할 수 있는 무역 개요인데, 그것[무역]의 역사와 이론, 초국적 기업들, 지역 무역 협상들, 개발·일자리 및 다른 쟁점들에서 무역의 역할, 그리고 무역과 무역 정책의 유망한 미래 방향을 포함한다.

Selkirk, A. (2020) The secret of civilization (<http://www.civilization.org.uk>).

고고학적 관점에서 썼고 많은 나라와 역사적 시기를 포함하는 이것은 최초의 '선물 교환' 무역에서 화폐 발명에 근거한 시장들까지 완전한 무역 역사를 제공한다.

## IEA에 관해

이 연구소는, 유한 합자, 연구 및 교육 자선 단체(No. CC 235 351)이다. 그것의 사명은 시장들이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자유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들의 이해를 향상하는 것이다.

IEA는 자신의 사명을 다음을 통해 달성한다.

- 고품질의 출판 프로그램
- 콘퍼런스, 세미나, 강의 그리고 다른 이벤트들
- 중고등 및 대학생들에 대한 봉사 활동
- 매체 도입과 출연의 중개

1955년 고(故) 앤터니 피셔 경(Sir Antony Fisher)에 의해 설립된 IEA는 교육 자선 단체이지, 정치적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이나 단체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어떤 선거나 주민 투표에서도 혹은 어떤 다른 때에도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것의 재원은 출판물의 판매, 콘퍼런스 참가비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로 조달된다.

자체의 메인 시리즈의 출판물들 외에도 IEA는 또한 (버킹엄 대학교(University of Buckingham)와 공동으로) 계간지 《경제 문제(Economic Affairs)》도 출판한다.

IEA는, 자신의 업무에서, 유명한 국제적 대학 자문 위원회와 명예 연구 위원들의 저명 패널의 도움을 받는다. 다른 학자들과 함께, 그들은 출판될 만한 IEA 출판물들을 논평하며, 그들의 논평들은 저자들에게 익명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모든 IEA 페이지는 지도적인 학술 잡지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엄격한 독립적 심사 과정을 밟는다.

IEA 출판물들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널리 수업에서 사용되고 교재로 채택

된다. 그것들은 또한 전 세계에 걸쳐 팔리기도 하고 종종 번역/재간된다.

1974년 이래 IEA는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개의 비슷한 기관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창설하는 것을 도왔다. 그것들은 모두 독립적이지만 IEA의 사명을 공유한다.

IEA의 출판물들에서 표현된 견해들은 필자들의 견해들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이 연구소의 견해들이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중견 직원들의 견해도 아니다.

연구소의 대학 자문 위원들, 명예 연구 위원들, 이사들 그리고 직원들은 다음 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다.

---

연구소는 그것의 출판 프로그램과 기타 업무를 위해 고(故)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교수의 관대한 회사(喜捨)로부터 온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린다.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 Lord North Street, Westminster, London SW1P 3LB  
Tel: 020 7799 8900  
Fax: 020 7799 2137  
Email: [iea@iea.org.uk](mailto:iea@iea.org.uk)  
Internet: [iea.org.uk](http://iea.org.uk)

**사무총장 & 랠프 해리스 펠로** 마크 리틀우드(Mark Littlewood)

---

**학술 및 연구 이사** 제임스 포더 박사(Dr James Forder)

---

**관리 이사들**

**의장:** 닐 레코드(Neil Record)

케빈 벨(Kevin Bell)

크리스티안 브외른스코우 교수(Professor Christian Bjørnskov)

로버트 보이드(Robert Boyd)

린다 에드워즈(Linda Edwards)

로빈 에드워즈(Robin Edwards)

마이클 힌치 경(Sir Michael Hintze)

패트릭 민퍼드 교수(Professor Patrick Minford)

브루노 프라이어(Bruno Prior)

마르틴 리케츠 교수(Professor Martin Ricketts)

린다 쉐스톤(Linda Whetstone)

---

**대학 자문 위원회**

**의장:** 마르틴 리케츠 교수(Professor Martin Ricketts)

그레이엄 배넉(Graham Bannock)

로저 베이트 박사(Dr Roger Bate)

알베르토 베네가스-린치 주니어 교수(Professor Alberto Benegas-Lynch, Jr)

크리스티안 브외른스코우 교수(Professor Christian Bjørnskov)

도널드 J 부드로 교수(Professor Donald J Boudreaux)

존 버턴 교수(Professor John Burton)

포레스트 캐피 교수(Professor Forrest Capie)

스티븐 N S 청 교수(Professor Steven N S Cheung)

팀 콩던 교수(Professor Tim Congdon)

크리스토퍼 코인 교수(Professor Christopher Coyne)

N F R 크래프츠 교수(Professor N F R Crafts)

데이비드 드 메자 교수(Professor David de Meza)

케빈 다우드 교수(Professor Kevin Dowd)

데이비드 그린어웨이 교수(Professor David Greenaway)

잉그리드 A 그레그 박사(Dr Ingrid A Gregg)

새뮤얼 그레그 박사(Dr Samuel Gregg)

월터 E 그라인더(Walter E Grinder)

스티브 H هنگ기 교수(Professor Steve H Hanke)

키스 하틀리 교수(Professor Keith Hartley)

피터 M 잭슨 교수(Professor Peter M Jackson)

제리 조던 박사(Dr Jerry Jordan)

테런스 킬리 교수(Professor Terence Kealey)  
 린 키슬링 박사(Dr Lynne Kiesling)  
 다니엘 B 클라인 교수(Professor Daniel B Klein)  
 마크 코야마 박사(Dr Mark Koyama)  
 찬드란 쿠카타스 교수(Professor Chandran Kukathas)  
 팀 루니그 박사(Dr Tim Leunig)  
 앤드루 릴리코 박사(Dr Andrew Lilico)  
 스티븐 C 리틀차일드 교수(Professor Stephen C Littlechild)  
 시어도어 루스벨트 맬록 교수(Professor Theodore Roosevelt Malloch)  
 아일린 마셜 박사(Dr Eileen Marshall)  
 안토니오 마르티노 교수(Professor Antonio Martino)  
 존 메도크로프트 박사(Dr John Meadowcroft)  
 안자 메르츠 박사(Dr Anja Merz)  
 루시 민퍼드 박사(Dr Lucy Minford)  
 줄리언 모리스 교수(Professor Julian Morris)  
 앨런 모리슨 교수(Professor Alan Morrison)  
 D R 마이덜턴 교수(Professor D R Myddelton)  
 마리 뉴하우스 박사(Dr Marie Newhouse)  
 폴 오머로드(Paul Ormerod)  
 데이비드 파커 교수(Professor David Parker)  
 니마 파비니 박사(Dr Neema Parvini)  
 빅토리아 커즌 프라이스 교수(Professor Victoria Curzon Price)  
 알렉스 로브슨 박사(Dr Alex Robson)  
 파스칼 살린 교수(Professor Pascal Salin)  
 레이진 샬리 박사(Dr Razeen Sally)  
 페드로 슈워츠 교수(Professor Pedro Schwartz)  
 J R 새클턴 교수(Professor J R Shackleton)  
 제인 S 쇼(Jane S Shaw)  
 W 스탠리 시버트 교수(Professor W Stanley Siebert)  
 샹커 싱검(Shanker Singham)  
 카를로 스타나로 박사(Dr Carlo Stagnaro)  
 일레인 스텐버그 박사(Dr Elaine Sternberg)  
 제임스 톨리 교수(Professor James Tooley)  
 라도미르 타일코트 박사(Dr Radomir Tylecote)  
 니콜라 타이넨 교수(Professor Nicola Tynan)  
 롤란드 바벨 교수(Professor Roland Vaubel)  
 센토 벨자노프스키 박사(Dr Cento Veljanovski)  
 로런스 H 화이트 교수(Professor Lawrence H White)  
 월터 E 윌리엄스 교수(Professor Walter E Williams)  
 제프리 E 우드 교수(Professor Geoffrey E Wood)

### 명예 연구 위원들

마이클 빈스톡 교수(Professor Michael Beenstock)  
 리처드 A. 엡스타인 교수(Professor Richard A Epstein)  
 데이비드 레이들러 교수(Professor David Laidler)  
 데어드러 맥클로스키 교수(Professor Deirdre McCloskey)  
 치야키 니시야마 교수(Professor Chiaki Nishiyama)  
 버넨 L. 스미스 교수(Professor Vernon L Smith)

## 옮긴이 후기

이 역서는 Eamonn Butler, *An Introduction to Trade and Globalisati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21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 애덤 스미스 연구소 소장이자 몽 펠랭 소사이어티 간사인 자유주의자 에이먼 버틀러 박사는 무역과 세계화에 관해 간단하고, 통찰력 있으며, 본질적인 개념을 제공한다.

무역은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의견 일치를 본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혜택들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역은 승자들만이 아니고 패자들도 만들어낸다. 또 세계화로 말미암은 우려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은 비경제학자 유권자들에게 불쾌하게 여겨지고,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한다. 이 책은 무역과 세계화의 많은 편익과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긴장들도 검토한다.

무역에 패자들이 생기지만, 그것은 무역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버틀러 박사도 무역을 막을 것이 아니라 패자들이 적응하도록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우려가 제기되지만, 면밀하게 검토하면 근거가 약하다. 버틀러 박사는 보호무역주의가 옳지 않음을 하나하나 밝힌다. 그가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지만, 그는 특히 WTO의 회원 규칙들과 분쟁 해결 절차에 희망을 건다.

우리 모두 무역과 세계화로부터 여러 종류의 혜택을 많이 누린다. 역자 역시 마찬가지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역자로서는, 무역과 세계화 덕분에, 다른 무엇보다도, 연구하기가 좋아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만약 우리가 서양 학문을 수입하지 못했더라면, 나의 처지가 어땠을까? 인문 사

회 과학에서 공자와 맹자는 알았을지언정 애덤 스미스는 몰랐을지 모른다. 《정관정요》는 읽었을지언정 《노예의 길》이나 《자본주의와 자유》는 읽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 결과 미심쩍어하면서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연구를 계속하고 있을지 모른다.

무역과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더라면, 국가 운영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달랐을 것이다. 국가 운영자의 사상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선량하고 국민의 요구를 추종하는 정치인을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정직한 운영자가 악한, 사기꾼보다 낫다. 그러나 그의 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가 지닌 사상이라는 점, 그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점, 그리고 그 사상이 구현되어야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린다는 점을 몰랐을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점이 역자에게는 무역과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이다. 무역과 세계화 덕분에 역자는 자유주의 사상을 전달하는 서적과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 역자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외국 서적을 최대한 많이 번역하여 국내 독자에게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대 로마인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작을 번역서로 읽었다. 이렇게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었기에 로마의 융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역자에게 변함없이 흔쾌히 번역 출판권을 주신 영국의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동 연구소의 학술 및 연구 이사 제임스 포더(James Forder) 박사 그리고 계약 실무를 처리해 주신 EPICENTER 이사 애덤 바사(Adam Bartha)에게 역자는 깊이 감사드린다. 무역과 세계화의 영향을 실감하면서.

2022년 4월 8일 역자

## 옮긴이에 관해

황수연은 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정년퇴직하였으며,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그리고 경성대학교 재직 중에는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1991년[폴브라이트 교환학자], 1997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 연구 센터(2004년), 그리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및 스타브로스 센터(2013년)에서 교환 교수로 연구하였다. 공공선택론,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주의 분야의 책을 다수 번역하였고, 미세스 연구소의 미세스 와이어를 번역하는 일에도 동참하고 있다. 역서들에는 에이먼 버틀러가 쓴 《공공선택론 입문》, 《루트비히 폰 미세스 입문》,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입문》, 《자유 사회의 기초》,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축약된 국부론》, 《애덤 스미스 입문》, 《아인 랜드 개론》, 《자본주의 개론》, 《학과: 101인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기업가 정신 개론》, 《민주주의 개론》, 그리고 버틀러가 한 장(章)을 쓴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가 포함되어 있다.

웁긴이 황수연이 낸 역서(공역 포함)

- 《득표동기론: 공공선택론 입문》(고든 탈릭)
- 《현대 정치 경제론》(브루노 S. 프라이)
- 《국민 합의의 분석: 입헌 민주주의의 논리적 근거》(제임스 M. 뷰캐넌과 고든 탈릭)
- 《동물 사회의 경제학》(고든 탈릭)
- 《새 연방제론: 지방자치의 공공선택론》(고든 탈릭)
- 《게임 이론: 개념과 응용》(프랭크 저게리)
- 《사적 욕망과 공공 수단: 바람직한 정부 범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고든 탈릭)
- 《지대 추구》(고든 탈릭)
-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 민주주의가 나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브라이언 케플런)
- 《공공재, 재분배 그리고 지대 추구》(고든 탈릭)
  
- 《득표 동기론 II: 공공 선택론의 이해》(고든 탈릭)
- 《자유주의로의 초대》(데이비드 보어즈)
- 《관료제》(루트비히 폰 미제스)
- 《전제 정치》(고든 탈릭)
- 《간결한 경제학 길잡이》(짐 콕스)
- 《복지, 정의 그리고 자유》(스콧 고든)
- 《도시 정부의 이해: 대도시 개혁의 재고》(로버트 L. 비시와 빈센트 오스트롬)
- 《경제 모형과 방법론》(랜들 G. 홀콤)
- 《공공선택론 입문》(에이먼 버틀러)
- 《대중을 위한 경제학: 오스트리아학과 입문》(진 캘러헌)
  
- 《미국의 외교 문제: 간결한 역사》(고든 탈릭)
-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에이먼 버틀러)
-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불균형, 기업가 정신 그리고 발견》(이즈리얼 M. 커즈너)
-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대항하는 두 정치 경제 체제》(랜들 G. 홀콤)
-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입문》(에이먼 버틀러)
- 《대도시 지역의 공공경제: 공공선택 접근법》(로버트 L. 비시)

《자유 사회의 기초》(에이먼 버틀러)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리처드 웰링스 편)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진보》(랜들 G. 홀콤)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에이먼 버틀러)

《축약된 국부론》(에이먼 버틀러)

《자유 101》(매드센 피리)

《공공 정책과 삶의 질: 시장 유인 대 정부 계획》(랜들 G. 홀콤)

《번영의 생산: 시장 과정의 작동의 탐구》(랜들 G. 홀콤)

《상식의 경제학: 모든 사람이 부와 번영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제임스 고트니,  
리처드 스트룹, 드와이트 리, 토니 페라리니, 및 조지프 캘훈)

《애덤 스미스 입문》(에이먼 버틀러)

《공공선택론 고급 개론》(랜들 G. 홀콤)

《아인 랜드 개론》(에이먼 버틀러)

《시장의 제도입: 시장 자유주의의 정치적 부활》(존 L. 켈리)

《자본주의 개론》(에이먼 버틀러)

《정치적 자본주의: 경제 및 정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랜들 G. 홀콤)

《학과: 101인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에이먼 버틀러)

《본질적인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크리스토퍼 J. 코인과 피터 J. 벅키)

《기업가 정신 개론》(에이먼 버틀러)

《본질적인 애덤 스미스》(제임스 오티슨)

《민주주의 개론》(에이먼 버틀러)

《본질적인 제임스 뷰캐넌》(도널드 J. 부드로와 랜들 G. 홀콤)

《본질적인 밀턴 프리드먼》(스티븐 E. 랜즈버그)